발간등록번호
11-1291060-000003-10

ISSN 2586-260X

2018 호국문예 제18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조국과 겨레는 나의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인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하리라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2018 호국문예 제18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Letters from The Seoul National Cemetery

2018 호국문예 제18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국립서울현충원

호국문예 제18집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토를 방위하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지이며 겨레의 얼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온 국민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국가 수호의 결의를 새로이 다짐하는 장소입니다.

호국문예 제18집

발 간 사

국립서울현충원은 조국의 수호와 발전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지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생생하게 깃들어 있는 역사적 현장에서, 그분들의 숨결을 느끼고 발자취를 더듬어 한편의 글과 그림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매년 호국문예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예정된 날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부득이하게 다음 날에 대회를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각자의 마음에 품고 있던 나라사랑의 정신을 원고지와 화폭에 담아내는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후손이 없거나 유해를 찾지 못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무후선열(無後先烈))의 후손 되어보기'라는 조금은 독특한 캠페인성 주제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감동 어린 소회를 잘 표현해주었습니다.

무후선열제단에 모셔진 한 분의 후손이 되어 일 년 중 하루를 정해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하여 그분의 제사상을 차려 기리고 싶다는 천진한 어린이가 있었는가 하면,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무후선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부끄럽다며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생각하며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겠다는 공무원 초년생의 다짐과, 무후선열은 후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그들의 후손임을 알아,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느 예비역 청년까지 모두 진정성 가득한 이야기로 제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후손이 없거나 유해를 찾지 못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무후선열(無後先烈))의 후손 되어보기'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감동 어린 소회를 잘 표현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어린 학생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까지, 각자의 문예적 재능을 통해 표현한 감동 어린 글과 그림을 이제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눈에 비친 현충원의 아름다운 모습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호국의 씨앗으로 심어져 힘차게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우리 대회에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해주신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한국문인협회이사장, 미술협회이사장을 비롯한 육 · 해 · 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국립서울현충원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심사를 맡아주고 계시는 한국문인협회와 한국미술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를 전하며, 귀중한 작품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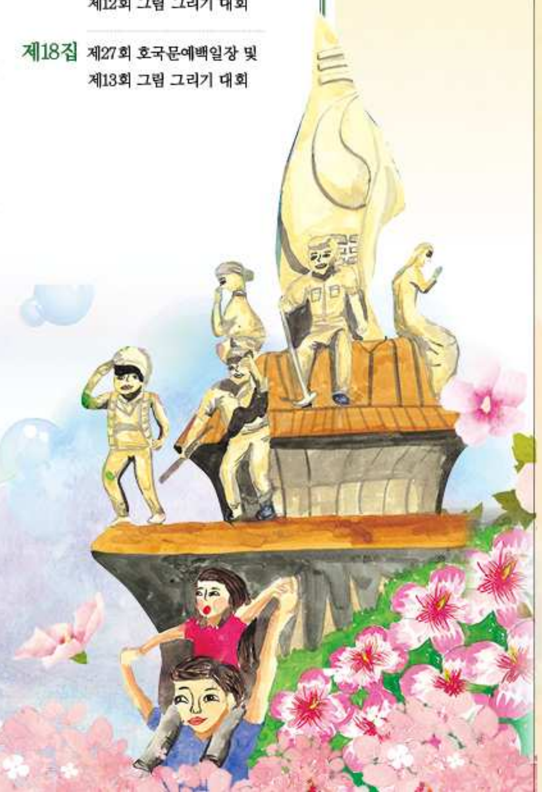
2018년 11월

국립서울현충원장 안수현

호국문예집

연 혁

- **제1집** 제1회 ~ 제4회 호국문예백일장
- **제2집** 제5회 ~ 제8회 호국문예백일장
- **제3집** 제9회 ~ 제10회 호국문예백일장
- **제4집** 제11회 호국문예백일장
- **제5집** 제12회 호국문예백일장
- **제6집** 제13회 호국문예백일장
- **제7집** 제14회 호국문예백일장
- **제8집** 제15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9집** 제16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2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10집** 제17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3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18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4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11집** 제19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5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20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6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12집** 제21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7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13집** 제22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8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14집** 제23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9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15집** 제24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0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16집** 제25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1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17집** 제26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2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제18집** 제27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3회 그림 그리기 대회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제1집

「먼 전설이 아니예요」(제1 ~ 4회 수상작 수록)

제1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3년 10월 30일(토)
- 인원 : 166명(초등학교 94개교, 중학교 72개교에서 각 1명)
- 시상 : 6명(초등부 3명, 중등부 3명)

제2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5년 5월 27일(토)
- 인원 : 176명(초등학교 87개교, 중학교 89개교에서 각 1명)
- 시상 : 제1회 대회와 동일

제3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6년 4월 27일(토)
- 인원 : 391명(초등학교 98개교, 중학교 99개교에서 각2명)
- 시상 : 14명(초 · 중학교별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2명, 장려상 각 4명)

제4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7년 4월 26일(토)
- 인원 : 382명(초등학교 99개교, 중학교 96개교에서 각 2명)
- 시상 : 제3회 대회와 동일

제2집

「그 언덕에 서면」(제5 ~ 8회 수상작 수록)

제5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8년 4월 26일(일)
- 인원 : 345명(초등학교 89개교, 중학교 84개교에서 각 1~2명)
- 시상 : 초 · 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2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5명

제6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9년 4월 24일(토)
- 인원 : 416명(초등학교 110개교, 중학교 104개교에서 각 1~2명)
- 시상 : 초 · 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2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6명

제7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0년 4월 22일(토)
- 인원 : 477명(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110개교에서 각 2명)
- 시상 : 초 · 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3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8명

제8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1년 4월 21일(토)
- 인원 : 477명(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110개교에서 각 1~2명)
- 시상 : 초 · 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3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8명

연 혁

제3집

「고마운 사람들」(제9 ~ 10회 수상작 수록)

제9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2년 4월 20일(토)
- 인원 : 478명(초등학교 158개교, 중학교 90개교)
- 시상 : 21명(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3명, 장려상 각 6명)

제10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3년 4월 19일(토)
- 인원 : 429명(초등학교 123개교, 중학교 81개교)
- 시상 : 25명(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3명, 장려상 각 8명)

제4집

「가슴 속에 스며드는 빛나는 영혼」(제11회 수상작 수록)

제11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4년 4월 17일(토)
- 인원 : 152개교 300명(초 · 중학부)
- 시상 : 20명(국방부 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2명)

제5집

「가슴으로 부르는 연가」(제12회 수상작 수록)

제12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5년 4월 16일(토)
- 인원 : 152개교 300명(초 · 중학부)
- 시상 : 20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2명)

제6집

「나라를 지킨 영웅들」(제13회 수상작 수록)

제13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6년 4월 15일(토)
- 인원 : 97개교 182명(초 · 중학부)
- 시상 : 24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6명)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제7집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제14회 수상작 수록)

제14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7년 5월 12일(토) 10:00 ~ 16:30
- 인원 : 86개교 188명 * 백일장 고등부 도입
- 시상 : 24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6명)

제8집

「지는 꽃 피는 꽃」(제15회 백일장 및 제1회 그림 대회 수상작 수록)

제15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08년 5월 16일(금)
- 인원 : 393명(백일장 282명, 그림 111명) * 그림 그리기 대회 신설
- 시상 : 백일장 18명, 그림 7명

제9집

「현충원의 봄날」(제16회 백일장 및 제2회 그림 대회 수상작 수록)

제16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2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09년 4월 11일
- 인원 : 2,386명(백일장 616명, 그림 1,770명) * 백일장 일반부 신설
- 시상 : 백일장 24명, 그림 57명

제10집

「내 마음속의 현충원」(제17~18회 백일장 및 제3~4회 그림 대회 수상작 수록)

제17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3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10년 5월 8일(토)
- 인원 : 2,518명(백일장 1,357명, 그림 1,161명)
- 시상 : 백일장 32명, 그림 76명

제18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4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10년 10월 8일(토)
- 인원 : 609명(백일장 454명, 그림 155명)
- 시상 : 백일장 24명, 그림 12명

연 혁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제11집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 (제19~20회 백일장 및 제5~6회 그림 대회 수상작 수록)

제19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5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
- 인원 : 2,167명(백일장 1,167명, 그림 1,000명)
- 시상 : 백일장 49명, 그림 51명

제20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6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11년 11월 12일(토)
- 인원 : 800명(백일장 616명, 그림 184명)
- 시상 : 백일장 33명, 그림 25명

제12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제21회 백일장 및 제7회 그림 대회, 외부 백일장 수상작 수록)

제21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7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12년 5월 12일(토)
- 인원 : 2,167명(백일장 1,167명, 그림 1,000명)
- 시상 : 백일장 59명, 그림 79명

제13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제22회 백일장 및 제8회 그림 대회 수상작 수록)

제22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8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13년 5월 11일(토)
- 인원 : 3,082명(백일장 1,420명, 그림 1,662명)
- 시상 : 백일장 75명, 그림 84명

  * 특별상 신설 (서울시 · 인천시교육감, 한국문인협회장, 한국미술협회장, 육 · 해 · 공군 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제14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제23회 백일장 및 제9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3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9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4년 5월 10일(토)
- 인원 : 2,430명(백일장 1,389명, 그림 1,041명)
- 시상 : 백일장 66명, 그림 65명

제15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제24회 백일장 및 제10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4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0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5년 5월 9일(토)
- 인원 : 2,211명(백일장 1,094명, 그림 1,117명)
- 시상 : 백일장 66명, 그림 67명

제16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제25회 백일장 및 제11회 그림 대회 수상작 수록)

제25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1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16년 5월 7일(토)
- 인원 : 1,843명(백일장 986명, 그림 857명)
- 시상 : 백일장 67명, 그림 74명

  * 특별상(경기도교육감상) 추가

제17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제26회 백일장 및 제12회 그림 대회 수상작 수록)

제26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2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17년 5월 13일(토)
- 인원 : 2,096명(백일장 957명, 그림 1,139명)
- 시상 : 백일장 71명, 그림 61명

제18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제27회 백일장 및 제13회 그림 대회 수상작 수록)

제27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3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일시 : 2018년 5월 13일(일) *우천으로 하루 연기 개최
- 인원 : 2,042명(백일장 1,035명, 그림 1,007명)
- 시상 : 백일장 71명, 그림 61명

제13회

그림 그리기 대회

- 최우수상
- 우수상
- 특별상
  - 서울특별시교육감상
  - 경기도교육감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상
  -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 육군참모총장상
  - 해군참모총장상
  - 공군참모총장상
  - 해병대사령관상
- 장려상
- 가작

그림 그리기 대회 심사평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이청기**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정기옥**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강신자**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차병철**

| 초등부 |

"같은 주제 안에서도 참신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간 그림들도 많았고, 작품의 완성도도 매우 높아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미술대회 작품을 심사하면서, 이번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제에 맞게 순국선열을 기리는 마음을 그림에 정성스럽게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청기 서양화가를 비롯한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설렘을 가지고 한 점 한 점, 최대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5차에 걸친 심사 과정에 임했습니다. 같은 주제 안에서도 참신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간 그림들도 많았고, 작품의 완성도도 매우 높아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그림들은 어린이답게 밝고 창의적인 표현과 맑은 색채로, 완성도 있게 표현한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현충원 그림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꿈과 소망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 중학부 |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미술을 접하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만큼, 이번 대회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의 그림을 더욱 애정 있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미술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느 학생들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과 애정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독창성을 가지고 문화를 리드하는 리더십 학습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미술을 접하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만큼, 이번 대회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의 그림을 더욱 애정 있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준은 주제의 전달 능력과 독창적 · 창의적으로 표현했는지, 화면의 구성과 색상의 조화로움 등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미술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꿈과 정서가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현충원의 미술대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

상	부문	작품명	이름	학교
최우수상	초등부	모두가 지키는 우리나라 – 현충문 앞에서	정소윤	서울송정초등학교 4학년
우수상	초등부	현충탑	민세연	서울신상도초등학교 1학년
		천사가 된 영웅	곽민재	서울신월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초등부	내 마음 최고의 현충원	김하늘	서울신북초등학교 1학년
		행복한 현충원의 오후	박도연	서울대영초등학교 1학년
	경기도교육감상			
	초등부	푸른 소나무와 현충문	최수애	양주 유양초등학교 2학년
		호랑이의 용맹함을 닮은 대한민국 국군	송치윤	용인 나곡초등학교 2학년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초등부	무후선열제단	정연진	서울남정초등학교 6학년
		슬픔 뒤의 희망이	박소은	용인 나곡초등학교 3학년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초등부	충성분수대	정민석	상명초등학교 3학년
	육군참모총장상			
	초등부	평화의 비둘기와 함께 하는 현충원	박성우	광명 철산초등학교 5학년
	해군참모총장상			
	초등부	나라를 지킨 영웅들	정우진	서울송정초등학교 5학년
	공군참모총장상			
	초등부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현충원	임소율	서울등마초등학교 4학년
	해병대사령관상			
	초등부	우리는 하나	한원희	남양주 덕소초등학교 4학년
장려상	초등부	마음의 현충문	박소윤	서울남성초등학교 2학년
		사랑하는 현충원	유지원	서울남성초등학교 2학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유채빈	용인 나곡초등학교 3학년
		당신의 용맹함으로 지킨 대한민국	김미지	용인 나곡초등학교 5학년
		베트남 용사 우리 할아버지와 나	장순호	서울신남성초등학교 3학년
		어제의 희생이 오늘의 영광으로	김서현	서울강남초등학교 6학년
		곁에 안 보이는 안의 모습	배희수	서울등현초등학교 4학년
		현충원의 아침 산책	조이신	서울은천초등학교 3학년
가작	초등부	현충문	김 범	서울강남초등학교 3학년
		나라사랑 이어달리기	이정혜	고양 토당초등학교 5학년
		유품전시관 앞에서	김소윤	서울금동초등학교 2학년
		유관순 언니의 위로	지태림	수원 황곡초등학교 2학년
		나라사랑 우리나라	정지윤	리라초등학교 4학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며	정예원	의왕 모락초등학교 2학년
		현충문아 안녕!	한혜민	양주 은봉초등학교 2학년
		현충원	정다은	용인 대지초등학교 3학년

상	부문	작품명	이름	학교
가작	초등부	천국에 있는 우리나라 지킴이와 현충원	김은서	서울신용산초등학교 2학년
		군인 아저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익	김포서초등학교 1학년
		항상 감사합니다	한혜린	양주 은봉초등학교 4학년
		무궁화 꽃이 된 순국선열	이지수	서울금동초등학교 3학년
		현충원 산책	황서린	서울염동초등학교 3학년
		무제	윤채원	서울원묵초등학교 4학년
		대한의 아들이여 영원하라	정연수	용인 나곡초등학교 3학년
		우리나라	소윤성	서울신상도초등학교 1학년
		되살아난 애국심	이수안	문경 모전초등학교 6학년
		영원한 대한의 힘	김민주	용인 나곡초등학교 1학년
		기도의 눈물	윤송희	안산 반월초등학교 5학년
		보고 싶다... 장한 내 아들...	김수아	화성 청목초등학교 6학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김시현	화성 청목초등학교 2학년
		국군 아저씨, 감사합니다	공민서	서울서일초등학교 2학년
		평화의 기도	김소정	부천 고강초등학교 2학년
		현충원 고양이의 보은	송민율	서울신미림초등학교 2학년
최우수상	중학부	물결 속 빛나는 충혼	금예슬	서문여자중학교 3학년
우수상	중학부	그리운 임아, 감사합니다	도나윤	용인 나곡중학교 2학년
		자랑스러운 호국영령	김려령	고양 가람중학교 2학년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중학부	무제	남지민	선화예술학교 3학년
	경기도교육감상			
	중학부	무제	김서연	경희여자중학교 3학년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중학부	평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박시현	신도봉중학교 1학년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중학부	그날을 기억하며	임지원	서울삼성학교 3학년
	육군참모총장상			
	중학부	남북, 과거와 미래	조민준	함안 호암중학교 3학년
	해군참모총장상			
	중학부	대한민국의 얼이 깃든 현충탑	김 봄	여의도중학교 3학년
	공군참모총장상			
	중학부	무제	손아현	경희여자중학교 3학년
	해병대사령관상			
	중학부	내 마음 속의 현충원	이소민	장승중학교 1학년
장려상	중학부	6月 6日	최민지	불광중학교 3학년
가작	중학부	휴식	조은우	동덕여자중학교 2학년
		서달산에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경환	광희중학교 1학년
		통일기원	차현지	장승중학교 3학년

최우수상

초등부

| 모두가 지키는 우리나라
– 현충문 앞에서

정 소 윤

서울송정초등학교 4학년

우수상

초등부

| 현충탑

민 세 연

서울신상도초등학교 1학년

| 천사가 된 영웅

곽 민 재

서울신월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초등부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내 마음 최고의 현충원

김 하 늘

서울신북초등학교 1학년

서울특별시교육감상

행복한 현충원의 오후

박 도 연

서울대영초등학교 1학년

특별상

초등부

경기도교육감상

푸른 소나무와 현충문

최 수 애

양주 유양초등학교 2학년

경기도교육감상

호랑이의 용맹함을 닮은 대한민국 국군

송 치 윤

용인 나곡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초등부

인천광역시교육감상

| 무후선열제단

정 연 진

서울남정초등학교 6학년

인천광역시교육감상

| 슬픔 뒤의 희망이

박 소 은

용인 나곡초등학교 3학년

특별상

초등부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 충성분수대

정 민 석

상명초등학교 3학년

육군참모총장상

| 평화의 비둘기와 함께 하는 현충원

박 성 우

광명 철산초등학교 5학년

특별상

초등부

해군참모총장상

나라를 지킨 영웅들

정 우 진

서울송정초등학교 5학년

공군참모총장상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현충원

임 소 율

서울등마초등학교 4학년

특별상

초등부

해병대사령관상

우리는 하나

한 원 희

남양주 덕소초등학교 4학년

장려상

초등부

| 마음의 현충문

박 소 윤

서울남성초등학교 2학년

| 사랑하는 현충원

유 지 원

서울남성초등학교 2학년

장려상

초등부

|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유 채 빈

용인 나곡초등학교 3학년

| 당신의
용맹함으로 지킨
대한민국

김 미 지

용인 나곡초등학교 5학년

장려상

초등부

| 베트남 용사
우리 할아버지와 나

장 순 호

서울신남성초등학교 3학년

| 어제의 희생이
오늘의 영광으로

김 서 현

서울강남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

초등부

| 겉에 안 보이는
안의 모습

배 희 수

서울등현초등학교 4학년

| 현충원의 아침 산책

조 이 신

서울은천초등학교 3학년

가작

초등부

현충문

김 범

서울강남초등학교 3학년

나라사랑 이어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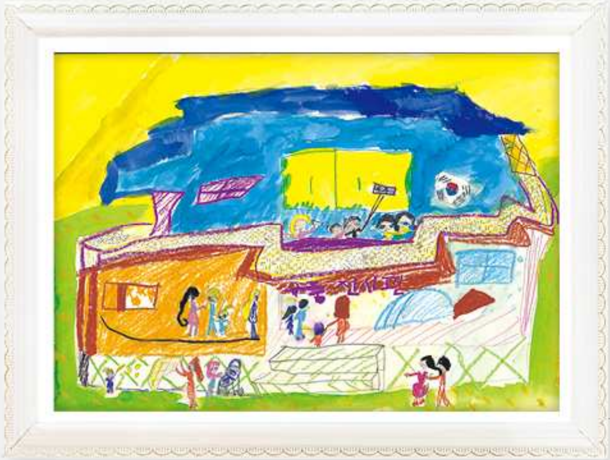
이 정 혜

고양 토당초등학교 5학년

가작

초등부

유품전시관 앞에서



김 소 윤

서울금동초등학교 2학년

유관순 언니의 위로

지 태 림

수원 황곡초등학교 2학년

가작

초등부

| 나라사랑 우리나라

정 지 윤

라라초등학교 4학년

|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며

정 예 원

의왕 모락초등학교 2학년

가작

초등부

| 현충문아 안녕!

한 혜 민

양주 은봉초등학교 2학년

| 현충원

정 다 은

용인 대지초등학교 3학년

가작

초등부

천국에 있는 우리나라 지킴이와 현충원

김 은 서

서울신용산초등학교 2학년

군인 아저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익

김포서초등학교 1학년

가작

초등부

항상 감사합니다

한 혜 린

양주 은봉초등학교 4학년

무궁화 꽃이 된 순국선열

이 지 수

서울금동초등학교 3학년

가작

초등부

현충원 산책

황 서 린

서울염동초등학교 3학년

윤 채 원

서울원묵초등학교 4학년

가작

초등부

대한의 아들이여 영원하라

정 연 수

용인 나곡초등학교 3학년

우리나라

소 윤 성

서울신상도초등학교 1학년

가작

초등부

되살아난 애국심

이 수 안

문경 모전초등학교 6학년

영원한 대한의 힘

김 민 주

용인 나곡초등학교 1학년

가작

초등부

기도의 눈물

윤 송 희

안산 반월초등학교 5학년

보고 싶다...
장한 내 아들...

김 수 아

화성 청목초등학교 6학년

가작

초등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김 시 현

화성 청목초등학교 2학년

국군 아저씨, 감사합니다

공 민 서

서울서일초등학교 2학년

가작

초등부

평화의 기도

김 소 정

부천 고강초등학교 2학년

현충원 고양이의 보은

송 민 율

서울신미림초등학교 2학년

최우수상

중학부

물결 속 빛나는 충혼

금 예 슬

서문여자중학교 3학년

우수상

중학부

그리운 임아,
감사합니다

도 나 윤

용인 나곡중학교 2학년

자랑스러운
호국영령

김 려 령

고양 가람중학교 2학년

특별상

중학부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남 지 민

선화예술학교 3학년

경기도교육감상

김 서 연

경희여자중학교 3학년

특별상

중학부

인천광역시교육감상

| 평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박 시 현

신도봉중학교 1학년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 그날을 기억하며

임 지 원

서울삼성학교 3학년

특별상
중학부

육군참모총장상

남북, 과거와 미래

조 민 준

함안 호암중학교 3학년

해군참모총장상

대한민국의 얼이 깃든 현충탑

김 봄

여의도중학교 3학년

특별상
중학부

공군참모총장상

손 아 현

경희여자중학교 3학년

해병대사령관상

내 마음 속의 현충원

이 소 민

장승중학교 1학년

장려상

중학부

6月 6日

최 민 지

불광중학교 3학년

가작

중학부

휴식

조 은 우

동덕여자중학교 2학년

가작

중학부

서달산에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 경 환

광희중학교 1학년

통일기원

차 현 지

장승중학교 3학년

제27회

호국문예백일장

- 최우수상
- 우수상
- 특별상
  - 서울특별시교육감상
  - 경기도교육감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상
  -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 육군참모총장상
  - 해군참모총장상
  - 공군참모총장상
  - 해병대사령관상
- 장려상
- 가작

호국문예백일장 심사평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이현서**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이혜선**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권남희**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최성배**

| 초등부 |

"작품 전반에 걸쳐 상상력과 울림의 진폭이 넓었으며,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주제에 맞게 잘 표현하였으며, 어린이 스스로가 무후선열제단에 모셔진 호국영령의 후손이 되어 봄으로써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존경하고 공감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어느 오후의 만남」은 서대문 형무소를 배경으로 시작해서 현충원까지의 공간적 이동뿐 아니라 1920년에서 2018년까지의 시간적 이동을 보여주는, 상상력이 매우 우수한 작품입니다. 또한 작품 속에서 유관순 열사를 만나 대화하며, 정서적 공감을 하고 다짐하는 화자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 중학부 |

"이러한 글짓기 대회가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승창민의 「현충원은 이런 곳이다」(산문)는 초등학교 때 멋모르고 현장체험학습으로 현충원에 와서 짜증내며 비석을 닦다가, 차차 철이 들면서 호국영령들의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과정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호국영령」(운문)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적 삶을 매난국죽, 사군자에 비유하면서 임들의 지조와 절개를 본받고자 하는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 고등부 |

"대회 당일 주제가 정해진 국립서울현충원 주최 백일장은 현장성이 높아서 새로웠습니다."

기간을 정한 공모전과 다르게 작품들도 진솔한 내용에 글쓴이의 정서가 충분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세련된 접근으로 주제 부합이 잘 되고, 표현력도 뛰어났습니다. 호국에 대한 긍정성이 높은 반면, 창의성과 독창성이 대부분 미약하여 작품의 우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목걸이」의 경우 할아버지와 함께 전우의 유해발굴에 동참한 내용이 상당한 필력과 함께 소재의 참신성까지 갖춰 감동을 주었습니다.

| 일반부 |

"거의 모든 작품이 호국, 보훈에 대한 주제와 방향성을 잘 소화해 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의 경우 묘비들을 돌아보고, 돌아가신 영령들과 6·25 참전 학도병인 부친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과의 교감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탁월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개인이 느끼는 역사의식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한 점 등은 높이 평가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제약된 시간과 컴퓨터 글쓰기에 익숙한 현실을 감안하면, 글 다듬기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호국문예백일장 수상자

최우수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어느 오후의 만남	조예원	서울신상도초등학교 5학년
중학부	현충원이란 이런 곳이다	승창민	월촌중학교 1학년
고등부	사무치는 이들에게	김두나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3학년
일반부	묘비로 남겨진 역사	양성자	경기도 성남시

우수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역사야! 힘차게 날아오르자!	소윤아	서울신상도초등학교 5학년
	무후선열제단의 정신적 후손	김세현	서울영본초등학교 5학년
중학부	호국영령-사군자와 함께		
	낮에 뜨는 별	육민이	오남중학교 2학년
고등부	목걸이	배수빈	동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다시 살아	최다은	진관고등학교 1학년
일반부	눈부신 임들이여	김선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나의 현충일, 나의 현충원	이다혜	경기도 동두천시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민들레 홀씨 되어	이명세	서울토성초등학교 6학년
	할아버지와 현충원과 나	이예성	서울보라매초등학교 5학년
중학부	현충원의 하루	배유진	방산중학교 2학년

경기도교육감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잊지 않겠습니다	김예윤	화성 청목초등학교 5학년
중학부	우리 할아버지	김하린	춘천 유봉여자중학교 3학년
고등부	답장이 먼저 온 편지	이소영	군포 산본고등학교 3학년

인천광역시교육감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그리운 임들께	이영현	인천 마전초등학교 6학년
중학부	진정한 태양의 후예 오규봉 일병의 넋을 기리며	박준혁	수원 정천중학교 2학년
고등부	나는 과거를 보는 것이 두렵다	이 림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현충원에서	차여강	서울가동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기쁘지 아니한가요?	고다영	봉원중학교 1학년
고등부	귀를 기울이면	김금비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일반부	현충의 뜻을 바로 알다	동회선	강원도 철원군

육군참모총장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배효주	군포 능내초등학교 4학년
중학부	공허	정채윤	숭의여자중학교 3학년
고등부	비석	박은선	선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해군참모총장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비 내리던 현충원	조하은	서울가동초등학교 6학년
중학부	자랑스러운 무후선열의 후손으로서의 다짐	이채민	인천계수중학교 2학년
고등부	그대들을 기리며	최현성	신목고등학교 3학년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5월의 희망	김주나	남양주 호평초등학교 6학년
중학부	이름	최시원	송파중학교 2학년
고등부	마지막 군가	김연주	고양 저동고등학교 2학년

해병대사령관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이만우, 이천우 할아버지께	나호원	서울반포초등학교 4학년
중학부	그 때 그 시절	정유경	부천 중흥중학교 3학년
고등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조현진	의왕 우성고등학교 2학년

장려상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김마리아 여사님의 정신적 후손이 되어	윤진아	서울미래초등학교 4학년
	현충원의 이름들	조인성	천안미라초등학교 2학년
	그날의 봄	이원준	서울가인초등학교 6학년
고등부	꽃대가 지던 날	양송임	일성여자중고등학교 2학년
	퍼즐	박태현	김포 운양고등학교 2학년
	그날의 그들	김태연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3학년
일반부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김경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이복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나라의 아들, 엄마의 자식	김효선	경기도 부천시
	싱그러운 봄기운 가득한 현충원에서의 호국을 향한 다짐	김형곤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국의 별은 무엇으로 빛나나	이신재	경기도 수원시

가작

부문	작품	성명	소속
초등부	결국 새살은 돋는다	유태경	서울목원초등학교 6학년
	대한민국 수호신	장준현	서울가동초등학교 3학년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이수민	서울잠현초등학교 5학년
	우리 할아버지	한수연	안산 양지초등학교 3학년
	당신을 위한 한 줄기 빛	박연아	서울잠현초등학교 3학년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김태호	서울방배초등학교 4학년
중학부	묘역의 언저리를 맴돌며	김인아	송파중학교 1학년
	햇살 아래,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예현	동일중학교 1학년
고등부	고개를 돌아보다	최재훈	양천고등학교 3학년
	이름에게	김주은	진명여자고등학교 3학년
	그들을 위한 편지	류미란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불효자	남병연	인천 신송고등학교 3학년
	정상	박준형	인천 부개고등학교 3학년
	유리관 안의 나방	손주형	잠일고등학교 2학년
일반부	대한민국을 품고	장석환	경기도 수원시
	묻혀진 유해	김관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룩한 숨결의 후예	배현우	강원도 인제군
	철모 구멍에 핀 꽃들	김정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겨레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이해의 한걸음	정재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바람 타고 온 편지	박시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생(二生)	김혜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일의 꽃	김명래	강원도 춘천시

어느 오후의 만남

나는 서대문구로 이사를 왔다. 서대문형무소가 집 근처에 있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서대문 형무소 둘레를 걷기도 하고, 형무소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서대문 형무소는 나의 주말 산책 코스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는 서대문 형무소가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잔인한 고문기구들이 나를 덮칠 것 같았다. 그 뒤로는 서대문 형무소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별 수단을 다 쓰고는 했다.

그날도 서대문 형무소 근처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책가방을 방문 고리에 걸어놓고, 침대에서 뒹구는데 거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역사학자인 아빠가 책상 위에 얹어둔 유관순 열사 우표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뭐지……? 귀신 아니야?"

"흑흑흑…나는 유관순 열사야."

"유관순 열사라고요? 거짓말!"

"진짜라니까. 흑흑……"

"정말 유관순 열사 언니죠?"

"당연하지. 정말로 나야."

정말 유관순 열사라니! 그럼, 위인을 만난 거라는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우는 걸까?

초등부

최우수상

"조국의 광복을 보고 싶어."

"네? 광복은 이미 했는데요?"

유관순 열사 언니는 서대문 형무소에 아직도 갇혀 있다고 했다. 누군가 독방에서 꺼내주지 않는다면 열사 언니의 혼은 차디찬 독방에 영원히 갇혀 버릴 거라고 했다. 나는 언니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렇게 무서워하던 서대문 형무소지만 언니를 도울 생각을 하니까 전혀 무섭지 않았다.

"음……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하자마자 내 몸이 우표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눈앞에 '1920'이라는 숫자가 보였다. 순간 환해졌다. 앞을 보니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다. 일본 순사 아저씨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저 아저씨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그때, 순사 아저씨들이 일제히 잠들어 버렸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형무소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언니를 찾아 손을 잡자 다시 눈앞에 숫자가 나타났다.

'2018'

눈을 떠보니 거실이었다. 옆에는 언니가 있었다. 나는 언니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다.

"언니,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나는 지하철을 타고 현충원으로 갔다. 무후선열제단이 보였다.

"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언니가 미소를 지었다. 무후선열제단에 환한 빛이 비쳤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평창올림픽 사진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10위 안에 든 것을 본 언니는 행복해보였다.

나는 비석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언니에게 말했다. 여기 묻힌 사람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언니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언니는 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를 안은 팔이 가늘게 떨렸다. 언니한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큰 짐을 혼자서 진 것 같아서 미안했다. 나는 후손으로서 언니가 진 짐을 조금 덜어주기로 다짐했다. 나도 언니처럼 목숨을 바칠 수는 없지만 목숨만큼 소중한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서러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언니가 나를 다시 안아주었다. 갑자기 언니의 몸이 사라지더니 무후선열제단에 환한 빛이 비추었다. 나는 무후선열제단을 향해 손을 흔들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 비석들을 보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에 감사하고 안타까웠다. 또 후손으로서의 책임감도 들었다. 나는 후손으로서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면 역사가 왜곡될 일이 없고, 다른 나라와 싸우기보다는 화합하고 바른 경쟁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작은 일부터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오늘따라 현충원의 초록빛이 더 싱그럽고 푸르게 보이는 것 같았다.

조 예 원
서울신상도초등학교 5학년

현충원이란 이런 곳이다

중학부
최우수상

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여러 위인들이 주무시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 쉬는 이곳에 오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정숙해진다.

나는 지금껏 한번도 현충원 옆에 산 적은 없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자주 왔고, 그때는 철이 없었기에 예의를 갖추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유리관 안의 낡은 물건과 땅에 박힌 돌과 그 위에 쓰여진 글씨. 그래도 나는 이곳에 오는 것이 즐거웠다.

그 다음에 온 것은 한 5년 후인 4학년 때였다. 현장체험학습의 명분으로 왔는데, 그 때가 6월, 더위가 최고도를 찌르던 때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은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와야 하니 한 걸음 만에 지칠 정도였다. 그 때 짜증내며 비석을 닦던 중, 그때까지도 돌덩이로만 알고 있던 묘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뒤에는 '파주에서 순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순국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애국, 조국과 같은 '나라 국'자가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고, 이분들이 호국열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위인이시란다.'

그 다음 6학년 때 개인 재량으로 오자 위인전에서 본 홍범도 장

군, 김좌진 장군 등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었고, 이 때 한 생각이 들었다. '아, 이 분들은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에 남아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구나.'

그 이후로 지금껏, 평상시에는 얌전하지 못해도 현충원에서는 정숙해지고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 '내 앞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독립투사, 호국열사들이 잠들어 계시는데 같은 대한의 자식인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서 현충원을 나오면 나는 나 자신이 한층 성장한 것이 느껴진다.

내가 최근에 현충원에 올 때는 전시관 관람을 자주 겸한다. 안에는 여러 위인들의 유품과 업적을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 이를 보면 '감사함', '슬픔'이 섞인 이상한 감정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볼 때면 내 고개는 자연스레 숙여지고 나 자신은 묵념을 하게 된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옆에 다시 비석이 보인다. 나는 부드러운 잔디 밑에 주무시는 분에게 다가가 '당신 덕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마음 속으로 말한다.

알고 보면 호국열사, 참전용사들의 나이도 예상 밖이었다. 20살 가까이 된 학도병부터 백발노인이셨던 강우규 의사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다.

지금 국립현충원에서 주무시는 위인들은 180, 106명. 그러나 아직 안착되시지 못한 채 안중근 의사처럼 아직 유골을 찾지 못한 분들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나는 오늘 다시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 이리 많은 분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는데, 같은 대한의 자식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이들의 희생에 따라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현충원에서 눈을 감으면 나는 현충원 밑,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조국을 위해 애쓰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고난과 얼, 혼이 느껴진다. 이를 우리 모두가 느끼고 마음 깊이 새기고 반성해야만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이분들의 노력을.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본받는 행동을.

현충원에서는 단지 추모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조상들의 뜻에 맞게 대한의 아들, 딸로서 사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현충원이란 모름지기 이런 곳이다!

승 창 민
월촌중학교 1학년

사무치는 이들에게

고등부
최우수상

이불 하나 없이 잠들어있던 땅
춘삼월 바람이 지나가려
얄쌍한 몸을 흔들었나
수십 년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얼어붙은 땅에도 춘기가 도는데
나는 어찌 애달픈 기운 대신
끓어오르는 뜨거움에 어찌할 줄 모르나

깁고 기운 목숨 다하기 전
피 대신 고대하던 날의 숨결이
온몸을 채우는 날이 오면
날랜 호랑이처럼 뛰어
한달음에 어머니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기억 속에서 수천 번을 찾아간 집에
하이얀 얼굴 웃음이 어여뻤던
색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갈 것이라고

고향 집 험한 길에 발바닥이 터져도
메주가 달려있던 우리 집 서까래
고물대던 아이들을 다시 볼 때까지
쉬지 않고 뜀박질을 칠 것이라고
호기롭게 외쳤던 이들은
왜 그리던 날이 왔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는가

아버지의 뜨거웠던 심장과
남편의 다정했던 눈길과
아들의 해맑았던 미소가
단단한 땅에서 살아 숨 쉬고
부는 바람도 애달픈 날
풀 아래로 사랑하는 이들이 흘러간다

김 두 나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3학년

묘비로 남겨진 역사

일반부
최우수상

얼차렷 중인 묘지를 바라보며, 하얀 꽃비를 맞으며 이팝나무 사이를 걸어갔다. 바짝 마른 대지 위로 내린 어제의 단비는 풀잎에 촉촉한 물기를 머금게 했다. 현충원에 올 때마다 입구에서 눈으로만 스치듯 지나간 묘지길이었다. 글을 쓰기 전에 묘지 끝까지 가보리라 작정하고 옮긴 발걸음이다. 이리도 넓었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던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직시하는 순간 호국영령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가슴 속은 뻥 뚫리고 바닥에서부터 시원한 기운이 온몸으로 올라온다. 바람이 싱그럽게 살갗에 스친다. 바람은 오래도록 담아 두었던 시간의 타래를 풀어낸다. 갈아엎은 듯 가지런한 묘지에 웃자란 풀들이 바람보다 먼저 고개를 든다. 낙엽 밑에서 겨우내 숨죽여 지내던 곤충의 미세한 알들이 봄바람 유혹에 못 이겨 스르르 깨어난다.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묘비 위로 날아든다.

누구의 영혼인가?

날개 한 겹이 풀잎처럼 하늘거린다. 꽃에서 꽃으로 날아가는 것이 일상인 나비가 계단을 조심스레 밟아가듯 묘비에서 묘비 사이로 머물렀다 날아간다. 마치 군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소대원을 다독이는 소대장의 모습 같아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정정한 비석은 오래된 책장 속에 빼곡히 꽂혀있는 책처럼 보인다. 책마다 주제가 다른 스토리가 있듯이 비석에도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비석마다 자신의 추억들을 갈무리하며 잠자고 있는 시간들을 흔들어 깨운다. 비석에는 판화처럼 세월의 흔적들이 찍혀져있다. 묘비는 그 사람의 내력이며 역사의 일부분이다. 계급과 이름 하나뿐이지만 가슴 아프고 치열했던 그날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이어진다. 어쩔 수 없이 친지와 동료에게 총부리를 겨눴노라고 비석은 언어가 되어 차마 알리고 싶지 않았던 비밀까지 토해낸다. 얼굴도 모르는 조상을 묘비에서 만난다. 마지막 가는 길에 비석 하나 남겼다. 한겨울 모진 추위와 매찬 바람 속에서도 누렇게 변색된 얇은 옥양목천 군복을 입고 버텼다. 철모도, 군번도 없이 학도병의 의무를 다했던 꽃다운 청춘도 결국에는 비석 하나로 남았다. 어느 땅 속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전사자가 비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묻혀져 있으리라.

아픈 기억은 지우개로 지우고 빛바랜 묘비를 보수한다. 전쟁의 상흔과 곪아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그 후손들이 맡아서 한다. 숫자가 넘어가는 경계마다 땅이 높아지고 식별을 위한 선이 그어졌다. 전쟁은 선 하나를 남겼다. 두 손을 맞잡고 그 선을 넘는 남북 정상의 깜짝 쇼가 연출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완전히 선이 지워지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포대기에 버려진 형형색색의 조화더미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오색찬란하지만 결코 생명이 없는 조화. 그래서 그 많은 화병 속에 그림처럼 꽂혀 있었던가. 묘석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빈 소주병과 술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반쯤 채워진 술잔에서 그리운 이를 추모하는 남은 자의 아픔이 보여진다. 내려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 안 들리세요?"

보청기를 낄 수 없는 아버지와 대화할 때 목소리는 높은 소프라노다. 그 높은 소리도 언제부턴가는 잘 듣지 못하신다. 자식 된 도리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 준 보청기는 안방 문갑 서랍 속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 귀에는 끊임없이 소리들이 함께 했다. 기계음, 포탄 터지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아버지 귀에서 살았다. 나이가 들면서 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귀 속에 있는 소리는 더 커져갔다. 6·25 참전 학도병이었던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명에 시달리며 살고 계신다. 나는 전쟁을 잘 모르지만 그 전쟁이 평생 아버지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내 아버지의 희생이, 이름 없는 호국영령과 저 묘지 위에 비석으로 남겨진 애국자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빌어본다. 결국에는 엄마와의 통화로 아버지 안부를 끝낸다. 나지막한 비석들 사이로 아슴아슴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진다. 비가 오려는가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보였다.

양 성 자
경기도 성남시

역사야! 힘차게 날아오르자!

죄수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 소녀는 누구인가?

고문을 받아 온몸이 부었던
그 소녀는 누구인가?

재판장에서 보았네,
그 소녀의 용기를,
그 소녀는 누구인가?

아우내 장터에서
작은 조약돌 같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우뚝 솟은 소나무처럼
만세를 부르짖던
그 소녀는 누구인가?

여자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내가 닮고 싶은 위인이라네,
그 소녀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도
그 소녀를 생각하며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역사에 날개를 달아준다

역사야!
힘차게 날아오르자!

소윤아
서울신상도초등학교 5학년

초등부
우수상

무후선열제단의 정신적 후손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다치면 난 제일 먼저 가족이 생각날 것 같다. 왜냐하면 가족이 나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 중에는 20살 정도밖에 안 된 분들도 많이 있다. 20살 때에는 가족의 관심을 받고 조금만 더 있으면 결혼을 할 나이다. 근데 이 꽃다운 나이에, 후손도 없이 죽으면 난 정말 원혼이 될 것 같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23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셔서 팔과 다리를 다치셨지만 가족의 돌봄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다. 그리고 남은 손인 우리가 계속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무후선열제단에 계신 분들은 후손이 없고 유해가 없는 분들도 있다.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하셨는데 생물학적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본 영화 〈코코〉에서 '영혼의 세계'가 나오는데 후손들이 기억해주지 않는 영혼은 아예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무후선열제단에 모셔진 호국영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나는 비록 그분들의 생물학적 자손은 아니지만 정신적 자손이 되어 그분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그분들의 넋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원래 우리 국민 모두 무후선열제단에 계신 분들의 정신적 후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들의 후손이 되기로 결심했으니 구체적인 실천을 해

초등부
우수상

보아야겠다.

먼저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꼭 현충원을 찾아 무후선열제단의 호국영령께 참배를 올릴 것이다. 또, 그분들이 소개된 책을 찾아 열심히 읽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좀 더 커야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호국영령을 찾아 책을 쓰고 싶다. 그래야 호국영령들이 후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 비록 생물학적 후손은 아니지만 수많은 정신적인 후손을 길러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현충원 백일장을 통해 무후선열제단 호국영령의 정신적 후손이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

김 세 현
서울영본초등학교 5학년

호국영령-사군자와 함께

중학부
우수상

매화가 피니
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그대들은 고된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화 줄기가 거칩니다
그대들의 험난한 생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결실로 우리가 있습니다
매화나무에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름이 오니
난초 향기가 풍겨옵니다
자신의 존재를 향기로 피력합니다
우리는 그대들 향기를 좇습니다
그대들은 우리의 경의를 받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그대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늦가을 국화꽃잎
색색이 만개합니다
국화는 경쟁과 싸움을 싫어합니다
모순적이게도 이를 위해
싸웠던 그대들을 압니다
알록달록 개성을 피울 시기에
그러지 못한 그대들을 위해
애도를 담아 국화를 바칩니다

겨울에조차 곧은
대나무는 푸르릅니다
사시사철 곧고 푸릅니다
이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고
이 때문에 그대들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는 강인한 그대들을
언제까지고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그대들의 정신적인 후손으로
뜻을 전승하여 지키고 기리며
더 먼 후세까지 알려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겁니다

낮에 뜨는 별

중학부
우수상

아침하늘을 올려다 볼 때
웃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별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별에게서 쌉싸름한
난초향이 나는 것은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겠다는
곧은 신념이, 하늘을 우러르는
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를 갈망하는 목소리에
붉게 물들어가는 하이얀 모시저고리
바람은 꽃잎을 받들고
안개꽃은 눈물져 떨어진다

원통한 마음이 솟구쳐올라
한 서린 빗물이 되어 내림에
무지한 나는 그 비를 맞으며
눈물을 삼킬 수밖에

사막의 신기루 속
환영을 쫓던 나에겐
너무나도 먼 별들이어서

나는 별 아래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되뇌는 것은
별을 노래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잊지 않겠다 속삭인다

고개를 들었을 때
다시금 바람을 타고
알싸한 난초향이
시리게 불어온다

육 민 이
오남중학교 2학년

목걸이

파란 기와 사이로 흘러내리는 빗줄기가 내 몸을 적셨다. 통 넓은 우비의 빈틈을 찾아 맨 살갗을 시리게도 만들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장화를 물 덩어리에 풍덩 담갔다. 마당을 나와 맞이한 오르막길의 빗줄기는 폭포처럼 쏟아져 내 발을 매여놓았다. 할 수 없이 고개만 들어 정상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를 할아버지가 삽질하는 소리가 빗소리를 파묻었다. 철과 땅이 맞부딪히는 냉철한 소리였다.

할아버지는 강원도 한 시골에 위치해 있는 우리 동네의 유명인사다. 온갖 곳을 다 파고 다녀 '도굴꾼'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땅의 어느 부분이 봉긋 솟아오르면 그건 도굴꾼이 다녀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묻히지 않기 위해 크게 소리쳤지만, 어린아이의 발랄한 목소리는 냉철한 삽 소리에 댕강 잘려 나갔고 2차로 차가운 빗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이 폭우를 어떻게 뚫고 올라가셨나.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겠다는 집념은 자연 현상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나도 그 집념을 따라가려 했지만 미끄럼틀이 되어버린 오르막길에 슬라이딩을 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끝없는 기다림을 하기로 했다. 차가운 마찰음이 내 귀를 괴롭혔다.

할아버지는 또 허탕을 치고 내려왔다. 슬라이딩할 뻔한 할아버지는 간신히 삽을 지팡이 삼아 중심을 잡으며 우리 민박집까지 도착하셨다.

"여기서 전투를 했었단다. 완벽한 패배였어. 여기서 절반이 죽어 나갔지."

그건 나도 아는 사실이었다. 할아버지가 찾아낸 유해는 몇 구 됐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전우들의 우정으로 그들을 찾는 거라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이상했다. 여기서 유해 몇 구가 발견되었음에도 할아버지는 계속 땅을 팠다. 여기 말고 딴 데 가보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꼭 여기여야만 한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현충원에서 찾지 못한 유해는 아직도 수두룩했다. 이름만 새기고 유해는 없는 경우도 많았다. 할아버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1등 공신이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가 찾고자 하는 건 못 찾은 것 같았다. 골골거리며 비를 맞으면서까지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고자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할아버지의 뭉그러진 삽을 들고서.

마치 〈연금술사〉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걸까. 연습 삼아 뒷마당을 몇 시간 동안 팠더니 무언가 탁하고 걸렸다. 나는 삽을 던져버리고 할아버지를 불렀다. 할아버지가 놀라 뛰쳐나와 미친 듯이 땅을 더 팠다. 유해였다. 다만 다른 것은 목 같은 부분에 금처럼 반짝이는 목걸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 목걸이를 단숨에 집어 들었다. 눈물과 비가 뒤섞여 유해로 흘러내렸다.

'소대장님. 이제 빚을 갚습니다.'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은 서울에 있는 현충원에서 들려왔다. 유해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얼떨결에 와 버린 나는 수많은 묘를 둘러보았다. 산뜻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가 나를 엄숙하게 만들었다. 목걸이의 주인의 묘 앞에서 나와 할아버지만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긴 묵념을 끝낸 뒤 버스로 배웅해주는 길에 목걸이를 주셨다.

"내 생명의 은인이시란다. 난 평생 이 목걸이만 찾아다녔는데 네가 단번에 찾은 걸 보니 이 물건의 주인은 너인가 보다."

할아버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내 손에 꽉 쥐여주셨다. 짤랑거리며 떨어진 목걸이는 찬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목걸이를 보며 목걸이의 주인을 생각했다. 목걸이의 측면에는 '후대에게 평화를'이라고 거칠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그럼 자신은 희생해도 된다는 말인가. 눈물이 흘러나왔다. 내 집은 사실 전쟁터였고, 난 아무것도 모른 채 수많은 유해가 묻혀있는 뒷마당을 짓밟고 다녔다. 내 손에 있는 목걸이를 굳게 잡았다. 내 목에 걸었다. 난 목걸이의 주인이 되었다. '후대에게 평화를'이라는 소망을 이뤄내야 할 주인 말이다. 햇빛에 물든 목걸이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배 수 빈
동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다시, 살아

그의 뒷모습을 타고
눈물이 내린다
낡은 군화를 신은 발끼지
온통 적신다

철퍽, 철퍽 내딛는 걸음걸음에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까만 눈동자
덜그럭 철모 부딪히는 소리
야속하게 타들어 가는 저녁해
모든 것을 등지고
그는 떠난다

쾅 쾅
부르짖는 붉은 화염들
비명소리 가득 메운 밤에
팔뚝만 한 소총을 들고
살을 베어가는 바람을 맞으며
공허한 참호를 지킨다

해가 뜨고 날이 질 때마다
전우의 옆자리가 시려온다

동구 밖 소나무 아래
흐느끼며 떠나 보냈을
식구들의 모습이
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진다

재가 다시 거름이 되어
군번줄 깊게 묻힌 그 땅에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고
피비린내 가신 하늘까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닿는다

이 땅에서의 눈물은
이제 그만 그치고
그의 뒷모습 아른아른
미소가 떠오른다

가벼운 걸음에
꽃잎 하나 포르르 따라간다

고등부
우수상

최 다 은
진관고등학교 1학년

눈부신 임들이여

봄은 봄대로
여린 새순과 꽃향기 떠다니고

여름은 여름대로
살랑바람 넘실 시원하고

가을은 가을대로
숙연한 단풍 고개 숙이고

겨울은 겨울대로
새로운 봄 기약하며 한숨 돌리는

나라사랑 가득 차 있는
이곳 현충원

나라 향한 열정의
온몸
조국 강토에 불사르더니

이제는
침묵 껴안고
초록융단 위에
하얗게
하얗게
줄지어 서 있는
임들이여

임들이 사랑 쏟아낸
산하고
강에게 물어본다
휘몰아쳐 흐를 때
눈 감고 싶었느냐고

임들이 지켜낸
산하고
강에게 속삭여 본다
언제든 돌아와 보듬어 주는
고향 누이 같아

일반부
우수상

임들의 나라사랑
푸른 강물에
꽃잎으로 흐르다
꽃 되어 향기 내고

빛 되어 누리에 찬란함은
그 사랑

평화의 새 되어
긴 세월의 흔적
품에 안는 그것
서로를 보듬는
그것이

임들의 가슴속에
들어 있음이다

사랑의 빛으로
들어 있음이다

온누리 비추는
평화의 빛으로
들어 있음이다

우리들 깊고 깊은 가슴속
그 빛으로
물들이고 있음이다
그래서
감히
임들이여
너무 눈부셔
바라볼 수 없노라고
수줍게 손 모아
작은 고백을 해본다

임들의 하얀 이름 앞에서

김 선 희
서울시 관악구

나의 현충일, 나의 현충원

일반부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 27묘역에는 나의 막내 외삼촌인 육군 일병 김상덕의 묘지가 있다. 내가 태어나기 7년 전, 군사훈련을 받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계산에 추락하여 외삼촌을 비롯하여 많은 군인들께서 순직하셨다. 지금도 순직일인 6월 1일이나 현충일인 6월 6일이 되면 나의 엄마를 포함하여 외가 식구들은 깊은 슬픔에 잠기신다. 이미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의 일이라 그만큼의 슬픔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년 현충원을 찾아와 진심을 담아 묵념하고, 외가 식구들을 비롯한 다른 유가족분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쉬는 날에 막내외삼촌을 보러 가는 날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나라를 위하여 양심을 지키고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하는 날로서 그 의미가 더 커지는 듯하다. 더 이상 내게는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매년 27묘역과 근처 유품전시관 정도만 둘러보던 나에게 현충원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었던 건 2016년 5월의 어느 날이었다. 법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던 때, 교육과정 중 하나로 현충원 방문이 있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동기들과 다함께 현충탑에서 묵념을 하고 현충관에서 관련 영화도 보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위패봉안관이었다. 6 · 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 또는 순직하셨으나 유골을 찾지 못한 무명용사들께서 봉안되어 있는 곳이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다는 등의 이유로 참전했으나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그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니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먹먹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외삼촌과 그 주변의 국군 장병들만 생각하던 것에서 더 많은 순직, 전사 국군들을 생각하고 기릴 수 있었던 기회였고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점에 더욱 감사한 하루였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 또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물론 대전현충원 등지에도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애국지사, 의인들이 잠들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막내외삼촌의 순직으로 매년 현충원을 찾고 그 의미를 새기게 되었지만 나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6월 6일이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데에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충일의 현충원도 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다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위해주려면 지나친 음주를 부르는 모임이나 행사는 지양하고 시끌벅적함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현충일을 보내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데 서로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 잡상인이나 현충일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들은 점차 사라지고 추모에 집중할 수 있는 현충일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현충원 백일장을 계기로 무후선열제단에는 처음 가보았다. 매년 현충원에는 방문하면서도 위패봉안관이나 무후선열제단과 같은 곳에는 너무나 뒤늦게 찾아간 듯하여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의 막내외삼촌뿐만 아니라 후손이나 연고가 없는 선열들도 함께 생각하고 감사함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생각하며 나 또한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최근 남북정상회담도 있었던 만큼,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현충일에 현충원에서 우리의 후손들과는 평화만을 노래하고 평온함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본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당신들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우리가 있고, 이 나라는 당신들의 바람대로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졌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본다.

이 다 혜
경기도 동두천시

민들레 홀씨 되어

초등부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봄이 되면 민들레는 살짝 고개를 밀어 꽃을 피운다.
그리고 홀씨를 세상에 전해서 민들레의 수수한 아름다움을 자연에게 보여준다. 정말 아름다운 민들레의 이야기이다.
민들레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가면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면 더욱 멋진 이야기일 것이다. 학교 주변만 둘러봐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참 많다.

이곳 현충원은 수많은 호국영령들께서 쉬고 계시는 곳이다.
수많은 폭탄과 총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셨던 호국영령분들 중 어떤 분은 후손이 없거나 유해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 중 한 명의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고자 한다.

이곳 현충원에는 아름드리나무와 조형물들이 한데 어울려 빛을 내고 있다. 이런 빛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아, 그 호국영령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애국심도 이런 빛이었을까?' 나는 아름다운 현충원의 빛보다 더 빛나셨을 그분의 애국심에 감동했다.
그래서 그분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아래 공부를 열심히 하여 나라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그분의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기 위해 바람과 민들레를 본받을 것이다.
바람이 불면 나무와 풀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흔들린다. 나도 바람처럼 그분의 이야기를 주위에 전해 주어서 많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본받음과 결심,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개가 있다. 바로 민들레 홀씨를 본받는 것이다. 민들레 홀씨는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많은 곳에 구석구석 싹을 틔운다.
나도 민들레 홀씨가 되어 호국영령의 이야기와 진정한 고마움을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기억할 때까지 구석구석 전할 것이다.
민들레 홀씨가 되어 무후선열제단에 모셔진 호국영령의 고마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는 것은 값진 일이 아닐까?

이 명 세
서울토성초등학교 6학년

할아버지와 현충원과 나

초등부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현충원은 내게 낯설지 않은 곳이다. 내가 현충원이 있는 동작구에서 태어난 이유도 있지만, 작년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매주 혹은 매달 이곳을 오고 있다. 처음 현충원에 왔을 때는 수많은 비석을 보며, 귀신들이 등장하는 공포영화가 생각나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할아버지가 계신 이곳은 이제 내게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정겨운 곳이 되었다. 지난 주도 김밥을 싸서 가족들과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가 백일장 대회 광고를 보게 되었다. 지난 가을 현충원에 왔다가 해설해주시는 선생님을 따라 이곳저곳을 둘러 보게 되었는데, 그때 공군부자 묘지와 유관순 언니의 위패, 술 냄새 진동하던 현충탑 지하, 이름없는 묘역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그 기억을 이번에 글로 풀어 보며,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그 중 공군부자의 묘지는 가장 기억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해설가 아저씨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현충관 옆쪽 묘지로 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묘지가 모두 일렬인데 묘지 2개는 일렬에서 벗어나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쯤 해설가 아저씨가 말씀을 해주셨다.
“여기를 보시죠. 무덤 2개가 불쑥 튀어나와 있죠?” 그 말을 마치자마자 우리가족은 모두 흥분했다. “어머…진짜”, “우와, 아빠 저것 봐.” 모두 무덤에 달려가서 두 묘지를 요리조리 살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시신을 관에 넣고 묻잖아요. 하지만 이 두 부자의 관엔 시신이 없어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왜냐고 물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가다 침몰해서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 가족은 모두 궁금해졌다.“공군들은 비행기를 타고 나가기 전에 손톱과 머리를 다 깎아요.” 만약 그들이 비행에 나갔다 사고가 나서 시신을 찾지 못하게 되면

손톱과 머리를 대신 매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난 충격을 받았다. 망망대해 어딘가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을 군인 아저씨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고, 아버지의 죽음에 이어 겹쳐진 아들의 비극에 또 한 번 무서움과 슬픔이 느껴졌다. 그들의 죽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숙연해졌다. 하루 하루 나의 시간들이 그들의 죽음으로 유지되고 있다니, 엄청나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두 번째로, 수많은 이름없는 묘역들을 둘러 보았다. 비석의 수는 엄청 많았지만 그 누구도 이름은 없었다. 분명 저들도 모두 태어난 날과 이름과,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있을 텐데, 나이도, 이름도, 얼굴도, 그들의 꿈도, 그들이 사랑하던 사람들도 알 수 없었다.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으며 그들이 전쟁터에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직감했을까? 어느 귀신 영화에서 본 것처럼 억울한 죽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들을 위해 눈을 감았다. 이름 없는 나의 위대한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현충원의 충혼당에 계신다. 할아버지가 우리집에서 충혼당으로 이사온 날만 해도 충혼당은 많이 비어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충혼당으로 이사온 지 열달 만에 충혼당은 만원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이제 심심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올 때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와 계신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슬퍼진다. 우리 할아버지 위 칸, 아래칸, 옆 칸, 같은 방에 계신 할아버지들 모두 어딘가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앞으로도 할아버지를 뵈러 이곳을 자주 찾게 될 것이다. 수많은 죽음을 한꺼번에 맞이한다는 일은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가 이분들의 삶과 죽음을 잊지 않고 되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함을 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내 삶을 가치있고 소중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 또한 깨달았다.

이 예 성
서울보라매초등학교 5학년

잊지 않겠습니다

초등부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과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한 날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신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뵈러 전시관에 다녀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얼굴은 모두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어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라면 무서워 도망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무서움을 참고 지켜내겠다는 정신만으로 버텼는지 궁금도 하였습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의 얼굴은 피로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한번 더 놀라고 많이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의병전쟁, 청산리 대첩, 무장 독립군의 대일 항전, 봉오동 전투, 태극단 투쟁 등 많은 싸움과 3 · 1운동 같은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대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조국을 위해서입니다.

의병 전쟁에선 우재룡님과 최응언, 이범운 선조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용사는 그 머리가 없어질 것을 잊지 않는다." 저에게 의병전쟁을 표현하라 하시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싸움 속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선조님들, 언제나 자

랑스럽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낸 우리나라를 절대 빼앗기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솔직히 그 동안 현충일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런 마음을 이 기회를 통해 떨쳐 냈습니다.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반 친구들에게 알려서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얼을 기리고자 만든 기념일인 현충일을 절대 잊지 않고 선조들을 생각하며 저는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집에서는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화목하면 학교, 사회, 나아가 나라끼리도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생활을 근면 성실히 할 것입니다. 특히 영어와 코딩을 열심히 배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이 위대함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 주려면 배우고 연구하고를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짐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예 윤
화성 청목초등학교 5학년

그리운 임들께

우리 겨레, 우리 땅 위해
목숨 바친 위대한 호국용사

그 넋, 그 혼 내 맘에 귀중히
담고 싶어라

새벽달 빛나는 날
위대한 호국용사들 기리며 그들의
뜻을 알아내고자 한다

낮과 밤이 나타날 때
위대한 호국용사들 기리며 그들의
용맹을 담아내고자 한다

애석하게도 가족들이 없어 편히
쉬지 못하는 그들께

내 기꺼이 그들의 자식되어
안식을 갖다 주리라

그 얼굴, 그 목소리 몰라도
빛나는 그들께
내 기꺼이 그들의 자식되어
편안을 갖다 주리라

손에 닿은 그들의 이름 석 자
내 마음을 이리도 울린다
이젠 그들의 목소리로 내 마음을
메아리친다

비석은 차갑지만 내 마음속 그들의 얼굴은
왜 이리도 따뜻해 보이는 걸까

초등부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이 영 현
인천 마전초등학교 6학년

현충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현충원에 갔다

푸르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우리가 느끼는 편안함
포근한 행복
이 모든 것은
순국선열의 피와 땀이다

그 구슬픈 세월을
지우개로 싹싹 지워
민족의 눈물, 민족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싶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나도 이어 가고 싶다

차여강
서울가동초등학교 2학년

초등부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보통 장미, 튤립, 연꽃, 벚꽃 등 어여쁜 꽃을 떠올리겠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궁화라고 생각한다. 무궁화는 우리 조상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꽃이 아닐까 싶다.

나는 오늘 TV 속에서만 보던 현충원을 처음 오게 됐다. 입구에서는 깨끗한 공원 느낌이 나서 현충원이 조금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나무도 많고 풀도 많아서 아늑하기도 했다.

유품전시관에 들어서니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유명한 분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또 그런 분들의 일생이 설명되어 있었다.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였다. 나도 독립운동가, 군인이었으면 저렇게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나라를 위해, 독립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은 진짜 애국심이 뛰어나신 분들같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열심히 싸우시다가 19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연필대신 총과 칼을 잡으셨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19살이면 나보다 겨우 8살밖에 많지 않은데 그 꽃다운 나이에 전사하셨으니 얼마나 안쓰럽고 슬픈 일일까? 아직 대학도 안 가고 군대도 가지 않은 나인데 말이다.

무덤에 이름이 '김00'이라고 표시되어 있으신 분도 있다고 한다. 전투에서 전사하셨는데 상황이 긴급하여서 제대로 묻어드리

초등부
특별상
육군참모총장상

지 못하고 급히 소나무 밑에 임시로 묻어 놓았는데 나중에 성함을 몰라서 무덤에 '김00'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성함을 알아냈지만 민족이 아픔을 표현하려고 '김00'이라고 표시해놨다고 한다. 정말 우울한 이야기인 것 같다.

이번 현충원 방문을 계기로 무궁화에 대하여 다시 봤다. 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무궁화는 생긴 것은 밋밋하지만, 우리 조상들처럼 꺾여도 다시 나고 365일 동안 무덤덤하게 서있다. 무궁화는 우리의 꽃이자, 결국 우리다. 무궁화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꽃이다.

배효주
군포 능내초등학교 4학년

비 내리던 현충원

초등부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동생과 함께
현충원에 왔다

푸르른 나무들이
비를 머금고 있다

향기로운 꽃들은
아픔을 참듯이
바람에 흔들리고

묘비에는
각각의 숭고한 정신의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있다

나는
동생과 함께
묘비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이름들을
새겨본다

6 · 25전쟁의 용사들
천안함 침몰 용사들
수많은 희생자들의 넋이
오늘도
우리들 가슴을 적신다

나는 잠시 하늘을
우러러본다

한점 구름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까지도

현충원의 숭고함을
달래준다

조하은
서울가동초등학교 6학년

5월의 희망

초등부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밤새 내린 비로 한결 깨끗해진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는 날이다. 현충원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약간 긴장되어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마술 공연을 하고 있어 보고 있으니 긴장이 좀 풀리는 듯했다.

주제가 발표되고 엄마와 현충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비를 맞고 더욱 파릇파릇해진 나무들에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가는 도중 길 옆쪽으로 수도 없이 많은 무덤을 보며 가슴이 짠해졌다. '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전쟁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숙연해진 마음으로 걷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덤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아이들은 바닥을 갈퀴로 쓸고 어른들은 비석을 닦고 있었다.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한 번쯤은 꼭 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후손들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묘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어느새 무후선열제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한 가지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무덤에 봉분이 생겼고 사각으로 무덤 주변이 돌로 둘러져 있었다. 이 무덤은 애국지사분들의 무덤이라고 했다. 자세히 둘러보던 그 때, 서재필 애국지사의 무덤이 보였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막연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실제 무덤을 보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 걷다보니 무후선열제단에 도착했다. 공사를 하고 있어 조금 시끄러웠지만 위패를 보니 내가 아는 이름들도 꽤 있었다.

위패를 둘러보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힘을 다 써버린 탓에 다리가 휘청거려서 너무 힘들었다. 겨우 겨우 내려오는데 문득 '애국지사들이 겪은 고통은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데 나는 겨우 조금 힘든 것을 가지고 이러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에너지바를 먹은 것처럼 힘이 솟았다. 그 덕분에 처음보다 훨씬 쉽게 내려올 수 있었다.

내려와서는 호국전시관에 갔다. 유관순 열사 등 여러 열사나 의사들의 말이 써 있었는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이 들었다.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자신도 남한으로 넘어와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으니 잠깐 북한으로 넘어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10초 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으셨다.
또 북한과 남한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약속했다. 북한은 핵 실험장을 폭파하기로 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남과 북의 관계가 점점 좋아진다면 통일도 가능성있는 꿈으로 바뀔 것 같다.

전에 사촌동생이 군대에 가고 싶지 않다고 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통일이 되면 희망자만 뽑거나 기간이라도 짧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촌동생이 가장 좋아할 것 같다. 특히 통일이 되면 6 · 25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 전쟁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시리아는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특히 힘없는 아이들이 많이 희생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 하루 빨리 전쟁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애국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장병 아저씨들과 경찰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김 주 나
남양주 호평초등학교 6학년

이만우, 이천우 할아버지께

저는 지금까지 현충원에 가까이 살았지만 현충원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충원에 와서 느꼈습니다. 옛날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많고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후손이 없으신 분들은 영혼이 돼서도 외로우실 거예요. 저는 유품전시관에 나온 분들 중에서 아주 외로우실 것 같은 두 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만우, 이천우 형제 할아버지입니다. 그 두 형제분께서는 6 · 25전쟁 당시 오직 국군의 일념으로 사랑하는 홀어머니를 뒤로한 채 정든 고향집을 떠나 전쟁에 참여하신 뒤 그리고 전사하신 지 60년 만에 다시 만나 이곳에 함께 잠들어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후손이 없어서 외로우실까봐 저는 편지를 쓰기로 생각했어요.

이만우, 이천우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반포초등학교 4학년 2반 나호원입니다. 저는 국립서울현충원 근처에 살지만 자주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글짓기 대회 때문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왔고 유품전시관에서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전쟁에 대한 책 몇 권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전쟁은 아주 위험하고 잔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과 북한이 싫어졌어요. 그리고 북한은 할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 싫어졌어요.

제가 읽은 책은 두 권이었어요. 첫째 책은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고 식민지가 끝까지 독립을 외치는 내용이었어요. 그중에서 권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독일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저는 지배하는 나라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로 '큰 기와집의 오래된 소원'이라는 책은 6·25전쟁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 책은 북한이 일제강점기가 끝나자 마자 바로 남한을 기습하여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고 곡식을 내놓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미루 아버지는 잡혀서 돌아오지 않고 남북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북한은 잔인하고 잘 기습공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은 형인 김정남을 독침으로 죽였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전쟁은 아주 잔인하고 위험하고 슬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 어머니의 친할아버지께서도 6·25전쟁에서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아주 힘들게 사셨대요.

그래서 저는 게임 회사에서 만드는 전쟁게임은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클래시 오브 클랜은 상대방의 기지를 부수는 게임인데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슬프고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 그 마을에 제가 살고 있으면 아주 속상하고 겁이 났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전쟁게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해서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버려야할 마음인 것 같아요.

제 취미는 종이접기에요. 저는 로봇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 로봇이 전쟁을 막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꿈은 로봇공학자인데 제가 만든 로봇이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작은 싸움이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커서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겠습니다. 저는 화를 잘 푸는 방법부터 궁리를 해야겠어요. 이만우, 이천우 할아버지, 현충원에서 편히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호원 올림

2018년 5월 13일

그동안 나는 전쟁의 아픔을 모른 채 편안히 살아왔다. 그리고 오늘 이곳 현충원에 와서 전쟁의 상처를 느꼈다.
이 편지를 쓰고 나는 전쟁이 아주 위험한 것임을 느꼈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초등부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나 호 원
서울반포초등학교 4학년

현충원의 하루

아버지는
벚꽃 날리는 봄이 오면
항상
더 정성스레 다린 군복을 입고
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전투화를 신고
아침 일찍 우리 남매를
현충원에 데리고 가셨다

현충문을 지나
애국지사묘역과
국가유공자묘역을 참배하고
위패봉안관에서
거수경례를 하시던
아버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손끝에 닿아있는
눈썹이 바람을 맞고
묘역을 단장한 새하얀 비석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들으며
아버지 어깨 위의 계급장은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애국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국가를 위해 인생을 바치고
민족을 위해 가족을 희생한
그분들의 넋을 기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해가 사라져가고
눈가에 진 주름만큼
아버지 말끝엔
무수한 고마움이 맺혀있었다
무한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중학부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배 유 진
방산중학교 2학년

우리 할아버지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으응, 할아버지 계신 곳에 가."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엄마 말로는 엄마가 스무 살이실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현충원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
이모와 외삼촌, 외할머니와 엄마까지 큰 봉고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다.
어디로 가는 지도 몰랐다.
다만 그곳이 내가 사는 곳에서 아주 먼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얼마나 달린 걸까, 차는 멈춰 섰고 나도 덩달아 내렸다.
큰 비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이라고 쓰여있었다.
우리는 주차장 옆 가게에 들어 갔다. 벽에는 형형색색의 조화가 있었다. 조화 몇 개를 샀다. 나에게 무어라 언질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 여기에 할아버지 산소가 있구나. 둘째 이모의 표정이 어두웠다.
소주와 육포를 사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수많은 비석이 행과 열을 맞춰서 정렬되어 있었다.
비석 뒤쪽을 보니 생년월일과 배우자가 쓰여있었다.
한걸음 한걸음 비석을 지나갔고 저 멀리선 어떤 가족이 절을 올

중학부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리고 있었다.

우뚝, 할머니가 멈추셨다.

수많은 비석들 한가운데 '김', '을'자, '복'자 세 자가 새겨진 비석이 있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으신 전쟁세대이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사셨다.

할머니 나이 열셋에 전쟁이 터졌고, 할아버지는 일본에 강제 징용되셨다고 한다.

끔찍한 노동에 할아버지는 탈출을 하셨고 얼마 뒤 전쟁이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그때 꽃다운 나이 열일곱이었다.

나는 전쟁이라고 하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전쟁과 한참 먼 요즘 열여섯들 중에 전쟁에 공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펜이 아닌 총을 잡고 전쟁터에 나간 열일곱 소년의 심정은 어땠을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담화를 나눴던 동료가 차가운 시체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본 할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는가.

수류탄을 밟아 발가락이 사라지고 총알 파편이 몸속에 돌아다닌다.

매일 밤 고통에 몸서리친 소년을 누가 다독여 줄 수 있는가.

전쟁고아가 되어 길바닥에서 엉엉 우는 소녀를 누가 달래줄 수 있는가.

엄마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항상 머리맡에 총을 두고 주무셨다고 한다. 어쩌면 할아버지의 시간은 전쟁을 겪은 나이 열일곱에서 계속 멈춰 있었을지도 모른다.

비석 앞에 돗자리를 폈다.

이모가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다.

육포도 크게 찢어서 올려놨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한 것들이잖아. 오늘 이렇게 다 왔어. 소주 드시라구.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응?"

소주잔을 들어 흙에 뿌렸다.

빈 소주잔에 또 소주를 꼴꼴 따랐다. 비석 앞에 놓고 절을 했다.

소주를 흙에 두 번 뿌리니 흙이 젖었다.

남은 술을 전부 뿌렸다.

할머니는 앉아서 비석을 어루만지셨다. 맨들 맨들한 비석 윗부분을 자꾸 어루만지셨다.

어린 나와 내 동생들은 뒤에 멀뚱멀뚱 서 있었다.

가만히 서서 가족들 눈치를 살폈다. 그 당시 나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포스터 몇 개 그린 게 다였다.

차가운 땅속에 홀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 누워 계신 분과 수다를 떨지는 않으실까.

할아버지 막내딸인 우리 엄마가 아이가 셋인 건 아실까.

할아버지는 지금 세상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할아버지', 이 네 글자를 내가 부를 수 있을까.

수많은 궁금증이 생겨났다.

"하린아, 그만 가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이모가 눈가를 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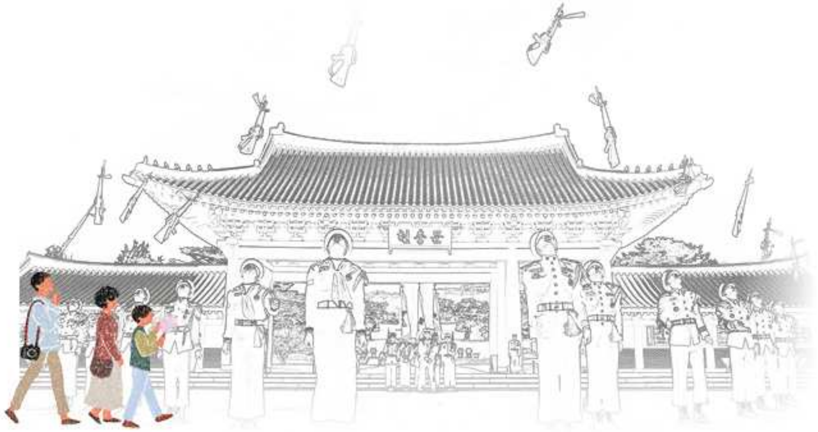
비석을 뒤로 하고 주차장으로 걸어나갔다.

할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따스한 봄날.

현충원 한가운데 할아버지 묘비에 햇살이 푸졌다.

김하린
춘천 유봉여자중학교 3학년



진정한 태양의 후예, 오규봉 일병의 넋을 기리며

중학부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준혁아! 엄마야. 나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라이딩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렴. 엄마도 강의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갈 거야!" 엄마는 나에게 몇 번이고 당부하셨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말을 흘려듣고 화성행궁을 몇 바퀴나 돌았다. 점심때 쯤 친구 민준이가 배가 고프다며 김밥을 먹으러 가자 했다. 김밥을 기다리며 뉴스를 보는데 북한의 핵도발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다. 서둘러 밥을 먹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집으로 가고 있어요. 엄마도 빨리오세요." 엄마는 혹시 전쟁이 나면 통신부터 끊길 수 있으니 형과 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때부터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겁도 났다. 5월의 푸르름이 가득한 도심 풍경을 가로지르며 집에 도착했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를 기다리며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1950년 6월 25일, 이 날도 지금처럼 평화롭지 않았을까? 책에서만 본 그 당시 전쟁 상황들은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 것들이어서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은 정말 큰 공포심을 주었다. 집에 가족들이 모이고 평범한 저녁식사를 하며 별탈 없이 지나간 하루였지만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늘 긴장감을 늦추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늘 국립현충원 백일장에 참가하면서 친구와 현충원 곳곳을 돌아보았다. 전시관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본 것은 호국영령들의 사진이었다. 앳된 얼굴의 청년장병 모습도 많이 보였다. 십 대의 장병들이면 지금의 내 또래였을 텐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중 눈에 띄는 장병이 있었다. '오규봉' 일병 피난 중 지원 입대해 백마고지 전투에서 특공조의 일원이 되어 몸을 사리지 않고 전장에서 적군의 기지를 파괴하고 장렬히 전사하였다는 부연 설명이 사진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었다. 순국선열에 대한 설명치고는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관에서 본 폭탄, 탄피, 찢어진 신발, 총알에 구멍 뚫린 군모만 보더라도 한 인간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몇 줄 안되는 설명글로 오규봉 일병의 업을 설명한다는 게 씁쓸했다. 일병으로 전사하였지만 나라에서 오규봉 일병의 업적을 인정해 하사로 추서되었다는 글도 있었다. 명예로운 죽음일 수도 있지만 중학교 중퇴한 청년 장병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지원입대한 후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훈련 중 순국하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뉴스를 볼 때면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를 가야겠다는 생각보단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들었는데 오규봉 하사의 이야기를 보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잠시나마 부끄러웠던 내 마음을 접고 오규봉 하사의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정신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싶다. 우리 집의 선조 중에는 애국지사가 없다. 하지만 수많은 애국지사의 숭고한 죽음으로 지금의 안보와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 이 감사한 마음을 정신적으로나마 오규봉 하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박준혁
수원 정천중학교 2학년

기쁘지 아니한가요?

당신,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보다 먼저 떠나갔음을

아까워하지 말아요
꽃 같은 삶 채 피지 못했음을

원망하지 말아요
생때같은 내 새끼 목숨 앗아간 비정한 조국임을

미안해하지 말아요
먹먹한 가슴 부여잡고 날 대신하지 못했음을

기억하지 말아요
나에게 상처 준 아픈 모습을

괜찮아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당신과 내가 한 뜻인 것을

나는 지금 행복해요
당신도 기쁘지 아니한가요?

고 다 영
봉원중학교 1학년

중학부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공허

텅 빈 묘지 안에
텅 빈 관 안에
텅 빈 나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밖의 봄바람 불어와도
밖의 비바람 몰아쳐도
밖의 사람들 얘기해도
다 느꼈지만 남지 않았다

푸른 바람, 푸른 소리
붉은 기억, 붉은 아픔
하얀 눈앞, 하얀 공간
다 보았지만 남지 않았다

기억해줄 사람 없이
눈물 흘릴 사람 없이
아파해줄 사람 없이
난 하나의 묘비로, 바람으로 남았을 뿐이다

푸른 옷이 붉은 옷으로
붉은 옷이 무명옷으로
여러 번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이름 석 자 적힌
묘비를 향해 눈물 떨구는 것
잡히지 않는
바람을 좇는 것

정 채 윤
숭의여자중학교 3학년

중학부
특별상
육군참모총장상

자랑스러운 무후선열의 후손으로서의 다짐

중학부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위인분들을 위인전기나 뉴스에서 접하게 된다. 나 역시도 어렸을 때 책들을 보면서 접했었다. 솔직히 나도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냥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라고 생각만 했었다.

근데 요즘 들어 순국선열분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보게 된 것 같다. 만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6·25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내 목숨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가면서 헌신을 해주셨던 무후선열 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챙겨드릴 후손이 없다'라는 사실은 내겐 정말 안타깝고, 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앞에 우뚝 솟아있는 현충탑을 보면서 내가 그 무후선열분들의 진정한 후손이 되리라고 굳게 다짐했다.

내가 지금 그분들을 당장 만나 뵐 수 있다면 나는 그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다. "왜 나라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포기하셨나요? 후회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후손인 저한테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내가 무후선열분들이 되어 생각해보고 대답한다면, "후손들아, 나는 나의 청춘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단지, 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나의 신념을 가지고 투쟁한 것이니라. 또한 후회를 하지 않았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나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은 나와 내 전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 내 조국을 이제 너희들이 경제적 기반을 갈고 닦아서 이 세상 어느 나라들보다도 강력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준다면 후손이 없었던 우리로서는 정말 고맙고, 바랄 게 없을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북 평화 협정이나 대외적으로 있어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자랑스러운 순국선열분들과 무후선열분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후선열분들이 피와 눈물과 희생으로 지켜내신 조국이니만큼 그 후손인 저희가 조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멋진 분들의 후손이자, 자랑스러운 조국의 자손이어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

이 채 민
인천계수중학교 2학년

이름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다

여기에
누워있게 된 건
오래 전
일이건만,
나의 묘에는
이름이 없다
가족에게
괜찮다 말해놓고
그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다릴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만 간다
이름 석 자 없는
내 묘를 두고
나를 생각할
가족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슬퍼져만 간다

오늘도
나의 묘에는
차가운
빗물만이
흐른다

중학부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최 시 원
송파중학교 2학년

그때 그 시절

현충원에 있는 전시관과 묘를 둘러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타까움'이었다.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고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법했지만 난 아니었다.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남편이며, 아내고, 아빠고, 엄마이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수도 있다. 전시관에 전시되고 싶지 않고, 이 현충원에 묻혀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때 그 시절, 그들은 평범하게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지 못했던 그들이 안타깝다.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자랑스러움'이다. 이 생각은 아마 현충원에 온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나는 이 현충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언맨보다 더 멋지고 용감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자신의 국가를 구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난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국가를 구한 그들이 자랑스럽다. 그때 그 시절, 그들도 무서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그만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집념 하나로 나선 그들이 자랑스럽다.

마지막은 '부러움'이었다. 그들은 대단했다. 만약 지금 전쟁이 나서 너의 목숨을 바쳐 국가를 구하라고 한다면 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도 내 목숨을 국가를 위해 바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을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나에게 나라를 위해 싸우라고 한다면 난 절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국가의 배신자가 되어 돈을 잘 벌 수 있는

중학부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선택지와 내 목숨을 담보로 한 나라를 살리는 선택지. 후자의 경우는 내가 죽는다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조건도 없었다. 지금의 경우 나라를 배신한 전자를 선택한 후손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때의 조상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벌었으니까 말이다.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솔직히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난 나라의 배신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럽다. 그때 그 시절, 영웅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들의 나라를 사랑한 마음이 난 정말 부럽다.

현충원을 보며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 세 가지이다. 현충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만 너무 많아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다. 난 이들의 얼굴을 모르지만 그때 그 시절 이들은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을 나는 안다.

현충원에 묻혀있는 이들의 영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때 그 시절 당신들의 피 묻은 태극기가 여전히 빛나고 있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그때 그 시절 당신들의 용기 또한 잊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약속합니다.

정 유 경
부천 중흥중학교 3학년

답장이 먼저 온 편지

자신이 우선인 나이에
오로지 나라가 전부였을 당신
잔디밭에서 뛰어놀 나이에
전장을 바삐 뛰어다닌 당신에게

푸르고 맑은 하늘 아래,
빛나는 당신의 이름 석 자
그 옆에 이 편지를 놓고 갑니다

이 편지는 답장이 먼저 왔습니다
내가 이 땅을 밟고 숨 쉬는 것이
답장입니다
충분하고, 과분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붉은 핏길은
붉은 장미가 핀 꽃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흔적이
너무 빛나, 난 고개를 숙입니다

땅 아래에서,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을 당신에게

난 편지를 써서 당신 옆에
당신이 깰까,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그럼, 부디 안녕히

빛을 잃지 않고 내내 빛날 당신에게

고등부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이 소 영
군포 산본고등학교 3학년

나는 과거를 보는 것이 두렵다

고등부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나는 과거를 보는 것이 두렵다. 과거의 그 참혹한 광경을 봄으로써 생기는 감정이 두렵다. 젊은 나이에, 늙은 나이에, 혹은 적당한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 사그라든 생명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감정은 뜨겁기도, 차갑기도 하다. 그들을 보면 만약에 내가 그 시절을 살았더라면 과연 같은 행동을 취할까를 저울질하게 된다. 그러면 나오는 대답은 아니, 가 된다. 나는 그들만큼 용기를 안에 담지도, 만들어내지도 못한다. 오히려 겁이 많다. 밤에 거리로 나가는 것조차 십분 넘게 고민할 정도이다. 그래서 나는 겁이 많다는 이유로, 두렵다는 이유로, 아는 것을 포기하고 눈과 귀를 가렸다. 한심한 행동인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왔다.

그러던 중 타의적인 이유로 눈과 귀를 가렸던 손을 치우는 일이 생겼다. 호국문예백일장을 참가하게 된 것이다. 사실 현충원으로 오는 길에, 아니 나는 처음부터 내가 외면해온 과거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했다. 현충원이라는 장소, 호국이라는 단어를 붙인 백일장의 명칭.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뭘까. 잘 모르겠다. 아니, 알고 있다. 내 꿈은 소설가이다. 생각을, 경험을,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 하는 직업이다. 영원히 과거를 외면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것이다. 나는 외면하면서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주제를 본 뒤 펜을 들기 위해 약 두 시간을 걸어 다니며 과거를 봤다. 또 다른 주제인 '호국영령 중 한 분의 정신적 후손이 되어 글을 쓰는 것'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외면해온 내가 그 주제로 쓰는 것은 말 그대로 허구이다. 외면해왔을지언정 거짓을 쓰고 싶지 않아서 보게 된 과거의 파편들은 생각보다 더 아프게 머릿속에 떨어졌다.

맨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호국전시관이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시큰거렸다. 그들은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학교 선생님, 길을 다니는 사람, 그리고 소중한 친구와 닮아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가슴에 내리꽂힌 사진은 바로 유관순 열사였다.

3·1운동으로 유명한 유관순 열사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비슷한 나이가 돼서 바라보자 느낌이 달랐다. 나와 내 친구는 급식실 앞에서 시시덕거리면서 줄 서고 있었을 때 유관순 열사는 가족을 잃은 고통을 억누르며 태극기를 들었다. 만약 나였다면 가족을 잃은 시점부터 사람의 기력을 잃고 하나뿐인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는 달랐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서 슬프다는 말을 했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나라를 잃고, 고문으로 인해 원래 자신의 모습을 잃고도 유관순 열사는 강했다. 모진 고문보다도 나라를 잃은 고통이 더 아프다고 했던 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순간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코끝이 울렸고, 눈가가 뜨거웠다. 눈물을 참기 위해 눈을 깜빡였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글을 쓰는 현시점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었다는 것은 기억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강하게 느꼈던 감정이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야말로 이 현충원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든 감정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분들을 순전히 자신의 이유로 외면해온 것이 첫 번째로 부끄럽고, 내 꿈이 아니라면 두렵다는 말로 끝까지 도망쳤을 나 자신이 두 번째로 부끄럽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핑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다.

오늘 현충원을 둘러봄으로 인해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거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 하나의 계기로 완전히 바뀐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줄 것이다. 과거를 아는 두려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처럼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의 두려움으로 인해 나아가지 못할 때, 한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용기가 되어줄 것이다. 그때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손을 치우고 진실을 보며 나아갈 것인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다.

눈을 감고, 오늘 봤던 수많은 사진과 비석을 떠올렸다. 여전히 나는 두렵고 겁이 많다. 하지만 오늘, 두려워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약간의 용기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약간의 힘을 갖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얼마 달라지지 못했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눈을 뜨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수많은 태극기가 위용을 뽐내며 펄럭였다.

이 림
인천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귀를 기울이면

고등부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나에게 현충원은 고향 같은 곳이다.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와 날이 무더워지면 현충원에 와 묘비를 닦았기 때문이다. 묘비엔 채 닦지 못한 아침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있었고, 주변엔 잡초가 자라있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건 모두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순국선열 덕분인데, 그분들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날아오는 총알이 무서웠을 것이다. 죽음이 두려웠을 것이다.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건 단 하나, 우리나라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발전하는 21세기 사회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대한민국을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낸 순국선열들의 정신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에겐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일깨워줄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매년 현충원을 찾아오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날 현충원에 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현충원에서 옛 어른들의 말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현충원은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처럼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비석과 키가 비슷하던 꼬마아이가 훌쩍 커버릴 때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다. 조용히 대한민국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토닥이고 있다.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건 그들인데 말이다. 그렇기에, 나는 묘비를 닦고 나면 깨끗해진 묘비에 가만히 귀를 가져다 댄다. 그러면 어디선가 휘이, 휘이 하고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작은 소리가 들려

온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작은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나는 그 바람 소리가 호국선열들의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잘 자라나 줘서 고맙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소리라고 생각한다.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백일장에 참가하게 된 나는 평화로운 새소리가 들려오는 현충원을 찬찬히 걸어본다. 변함없이 나를 반겨주는 꽃과 나무들, 꿋꿋하게 서서 현충원을 지키는 듬직한 경비 아저씨들,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같은 말소리들. 나는 끝없이 펼쳐진 비석들을 올려다보며 옛 기억을 떠올린다. 풀내음이 향긋하게 스며든 묘지에서 팔다리가 새까매질 때까지 비석을 닦고 풀을 뽑던 어린 나를 떠올린다.

바람이 살랑살랑 얼굴을 간지럽히고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아늑하고 편안한 이곳, 현충원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 그리운 곳일 것이다. 선조들이 말을 걸어오고 현재와 과거의 중심이 되는 이 현충원은 평생토록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것이다.

김금비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비석

느릅나무 아래,
할아버지는 수많은 비석 중 하나였다
까치가 나무 위로 날자
느릅나무의 그림자는 묘지를 향해 길어졌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겹쳐질수록
자꾸만 굵은 총소리가 들렸다

다른 비석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은
유난히 색이 옅었다
비석마다 놓인 꽃들이 고개를 떨구자
바람 온도는 낮아졌다
묘지 위로 쏟아지는 햇빛에
비석 속 흉터는 선명해졌다
나무 아래에서 붉은 피를 흘리던 할아버지
햇빛이 그늘로 모습을 바꿀 때면
알 수 없는 군사용어들이 들리는 것 같았다
묘지 주변에 자란 잡초들은
밟히고 밟혀도 자꾸만 자라났다

단물이 다 빠진 비석에는 개미 한 마리 오지 않았다
비석 속 할아버지의 이름은
달빛도 없이 잠이 들었다

박은선

선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
특별상
육군참모총장상

그대들을 기리며

고등부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의 구슬픈 노랫소리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우두커니 서서 발밑에 자리한 묘비를 바라봤다. 고요한 적막만이 맴도는 비석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낡고 낡은 비석에 적힌 세 글자. 평범한 이름 세 글자. 그 평범함 뒤에 감춰진 뜨거운 애국심에 어느새 내 부끄러운 무릎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따스한 햇볕. 화사한 옷차림. 오랜만이었다. 고3이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니. 나는 오랜만에 상쾌하고 들뜬 기분으로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펄럭이는 태극기들 사이로 저편 멀리 국립현충원의 모습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제가 발표되고, 난 한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글 몇 글자 끄적인다고 해서 과연 호국영령들에게 내 진심을 표출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내 감정을 사실대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진실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에 나는 현충원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시, 나는 어느새 엄숙하고 정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곳곳에 보이는 태극기와 장렬히 순국하신 여러 명의 열사들. 그들이 지녔을 강한 의지를 생각해보니 어느새 나의 마음 한 켠에 아련한 마음이 자리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싸운 그들. 비록 그들의 몸은 총, 칼에 무참하게 짓밟혔을지라도 그들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애국심은 그 무엇으로도 짓밟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져 있었다.

다시 감정을 추스르고 도착한 곳은 호국전시관이었다. 어두운 분위기의 그 방은 다른 전시관에서는 느끼지 못할 묘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터벅터벅. 아무도 없는 조용한 전시관에 내 발자국 소리만이 나직이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우리들의 영웅들이 있었다. 그 영웅들의 이름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따위가 아니었다. 그들은 흔하고 대중적인 이름 세 글자였다. 그렇다. 그들은 흔하디흔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애인, 둘도 없는 아들. 그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알 수 없는 열기가 내 몸을 휘감았다. 다시 바람의 애절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수많은 묘비 위로 고개를 치켜들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어느새 내 곁엔 어린 아이가 다가와 있었다. 아이는 자원봉사를 하는지 조그만 물수건으로 묘비를 닦고 있었다. 이제는 묘비 위에 적힌 글귀마저 보이지 않는 세월의 압박 속에서 아이의 깨끗하고 순수한 웃음은 호국영령들의 울분마저 닦고 있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공간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저 아이의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이 아니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끝도 없이 나열된 수많은 묘.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정열과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은 결코 그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얗고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꺾어 그들에게 바친다.

최 현 성
신목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군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우렁찬 군가가 울렸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육개장을 떠넘기며 군가를 들었다. 난생처음 알았다. 육개장과 군가가 묘하게 어울린다는 것을. 그날은 바로 친할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할아버지는 참전군인이셨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평소 유언에 따라 장례식장에 우렁찬 군가를 울리게 했다. 몇 달 전까지도 할아버지는 시립병원 302호 병실 흰 침대 위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누워계셨다. 수술을 마친 뒤라 계속해서 혼수상태였다.

"이보게 상봉이, 어찌 자네 먼저 가려고 그러는가."

할아버지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은 백발이 성성한 채 병원으로 찾아와 작별을 준비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통일을 눈앞에서 맞을 뻔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한탄하셨다.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던 때에도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수술 후 혼수상태에 빠지셨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일시적으로 다시 기력을 회복하는 듯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소복이 쌓여있는 눈처럼 잠잠히 자리를 지키시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할아버진 나와 가족들을 보시고는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다. 우리는 휠체어를 끄는 큰아빠를 선두로 병원 밖으로 나갔다.

"말보루 있나?"

가냘픈 목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물음이었다. 유일한 흡연자인 큰아빠에게 묻는 할아버지의 물음이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말에 얼이 빠진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피울 게 아니니 담배 개비 하나만 줘 보라며 말씀하셨다. 어쩔 수 없이 큰아빠는 할아버지에게 담배를 드렸다. 할아버지는 담배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고는 입에 가볍게 무셨다.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이 있거나 신경 쓸 거리가 생기면 자주 담배를 물곤 하셨다. 결국 그렇게 피우던 담배가 쌓여 결국 할아버지를 폐암이라는 질병까지 이끌고 갔지만 담배는 할아버지에게 숙명적 존재인 것 같았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느그들은 몰랐겠지만 나에 대한 얘기들이 다 들리더라. 나를 두고 죽네, 사네, 서로들 많이도 얘기를 하던데 느그들 얘기 들으면서 나도 많이 느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짐짓 놀라 하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가셨다.

"너희들이 나를 몇 개월 안 남은 시한부 취급을 할 때 참말로 화가 났다. 물론 사실이지만 배신감이 밀려오더라고. 하지만 정작 깨어나고 보니 내 옆에 임자가 있음에, 또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음에 새삼 감사하더라고. 어쩜 내 욕심만 부리는 걸지도 모르지. 너희들에게 짐을 지게 하는 거니."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와 온 가족의 눈엔 눈물이 서려야 했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 바로 전쟁 당시 군인이었던 시절이었다. 내 죽어도 그 시절의 뜨거움은 안 잊으려니 내 장례식에 군가 하나만 틀어줘."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신 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군가를 틀어달라는 말이 일종의 유언이었던 셈인데, 그게 단순히 하신 말씀이 아니란 걸 어린 나이임에도 나는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뒤, 호국원에 오게 되었다. 평소 매번 할아버지와 호국원을 가던 나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할아버지 없이 호국원에 오니 할아버지가 그립다. '여기 포화를 뚫어 조국을 지킨 포병용사들 고요히 잠드시다'라는 묘비를 보았다. 그 추모비를 보고 있자니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신 유공자 할아버지의 열정이 느껴진다. 이제 할아버지는 평생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전우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셨다. 나 역시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를 위해 평생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고등부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김 연 주
고양 저동고등학교 2학년

우리 모두의 아버지

후손은 없지만 후손은 있다

부서진 옥빛을 머금은 잉어가
번쩍 튀어 올라 뿌리를 내린 역사의 가슴엔
포탄의 흔적, 용개와 열정만이 남아 있다

이슬처럼 맺힌 그리운 눈물 따라
길게 뻗은 무궁화 줄기를 따라 걸으니
이른 나이 조국을 위해 떠난 그들이 아른거리는데
"차라리 이 머리는 잘릴지언정
이 무릎 꿇어 시대의 종이 될 수는 없다" *
젊고 길었던 숭고한 그 희생

피 흘렸던 자리엔 채송화가 붉게 피어나고
조국 땅마다 들꽃이 휘날리는 건 누구의 은공인가

빼앗긴 조국 위해 거대한 광음을
민족애 하나만으로 버텨냈었다
아비 없이 남아있는 조국의 어머니는 젊은 아들을 목놓아 부르는데
저만치에서 웅장한 장송곡이 울리는 듯하다
시신조차 장렬히 싸운 우리 모두의 무후선열

고등부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애국자 이상룡 선생님이 압록강을 건널 때 쓴 항일 시 중)

두꺼운 역사책 한 장 한 장에
고귀한 꽃봉오리를 틔운,
자유와 평화의 갈증 풀어준 그들의
후손이 바로 나요, 우리 모두이다

후손은 없지만 후손은 있다

조국의 해와 달과 함께 잠들고
그의 딸 아들인 우리는
이곳 현충원에서
참배하고 감사를 보내리라

조 현 진
의왕 우성고등학교 2학년

현충의 뜻을 바로 알다

일반부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전 초등학교 6학년, 2학년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고, 곧바로 현충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곳에 온 의미를 설명해 주며 진정 난 현충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인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이런 어려운 말들을 아이들에게 말하며 사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쓰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현충원의 많은 묘지와 현충과 관련된 탑, 조형물, 유품 · 호국전시관을 관람하며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각자 맡은 곳에서 싸우다 전사하신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백일장에 오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곳에 안장되신 많은 분들의 "충(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하라고 가르치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어려울 땐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망설여 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나라가 있어야 나와 내 가족이 당당히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없이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왔던 이스라엘, 36년 동안 주권을 잃은 채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그 설움과 차별을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역사를 통해 지난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나라는 우리,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지킨다는 표현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정상회담, 앞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모든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한 결실일 것입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평화로운 나라에서 아이들이 전쟁과 같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국지사 묘지의, 이름도 알지 못한 묘비들을 보았습니다. 역사책에 나오신 분들도 훌륭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순국자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으로 이룬 이 평화로운 세상.

동 회 선
강원도 철원군

김마리아 여사님의 정신적 후손이 되어

한 달 전에 현충원에 한 번 현충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왔었다. 지난 번엔 '무후선열제단'에는 가보지 않아서 이번에 가보면 좋을 것 같았다. '무후선열제단'은 후손이 없는 순국선열, 애국지사분들이 있는 곳이다. 난 '무후선열제단'에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영화로도 나왔던 박열, 유관순, 김마리아, 이상설 등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셨다.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어른 손바닥만한 작은 위패에 모셔져 있다는 게 좀 놀랍고 마음이 안 좋았다. 엄마가 "이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라고 물어보았다. 내가 그분들께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서 죄송했다. 그래서 한 분씩 모두 인사를 드렸다.

난 김마리아 여사님의 정신적 후손이 되고 싶다. 먼저 김마리아 여사님은 '여자일수록 보호받아야 한다.'가 아닌 여자일수록 더 당당하게 살아가셨다. 그 점이 좋았다. 그때 당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독립이었는데 김마리아 여사님이 계속 배워서 많은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좋았다. 나도 내가 다 컸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김마리아 여사님께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김마리아 여사님 말고도 많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윤 진 아
서울미래초등학교 4학년

초등부
장려상

현충원의 이름들

우리 증조할아버지의 성함
'조선환'을
나는 기억한다
나에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한
증조할아버지의 이름

증조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증조할아버지
지금도 현충원에 함께 계시는
증조할아버지 이름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잡아보시고
나를 안아주신 우리 증조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증조할아버지가 지어주신
나의 이름 조인성

지금 여기 현충원에 있는
많은 이름들을 천천히 읽어본다
한 글자씩 읽어보며
나는 항상 감사하기로 한다

증조할아버지와 같은 호국영령들의
아름다운 희생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삶을 되찾아 주셨다

나도 호국영령들처럼,
증조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야겠다

잊을 수 없는,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름들을 위해

초등부
장려상

조 인 성
천안 미라초등학교 2학년

그날의 봄

현충원에서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겨울에서 봄이 오는데 68년이나 걸렸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꽃, 나무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현충원, 한국에서는 봄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봄을
끝까지 이어주어야 한다

이 원 준
서울가인초등학교 6학년

초등부
장려상

꽃대가 지던 날

늦은 봄, 초여름으로 가는 계절 앞 녹색 물결 속에 주일을 맞아 그림 그리기와 백일장에 온 사람들로 현충원 내는 분주하다. 어제 단비가 내려 연록에서 짙은 초록 잎으로 물기를 머금은 나무를 지붕 삼아 벤치에 앉아 잿빛 하늘을 본다. 순간 나뭇가지 사이로 빼꼼히 들어온 햇살이 반갑다. 지난해 이맘때 보았던 낯설지 않은 얼굴과 마주쳐 싱긋 웃음으로 인사 나누고 큰아버지 위패가 있는 곳으로 갔다. 묘비들의 도열 앞에 묵념을 올리고 해남 땅끝 마을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촌 언니께 전화하니 고맙다 하며 울먹이는 소리다. 큰아버지는 언니가 태어나기도 전 육이오 때 전사하시고, 어머니마저 새로 가정을 꾸려 먼 곳에 계시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 아래 자란 언니가 안타깝고 보기조차 힘들어 하시며 사랑을 나눠주고 시집까지 보내시며 앞으로 신랑 사랑받고 새로운 삶 행복하게 살라며 고갯마루에서 등 어루만지시던 내 어머니가 생각난다. 우리나라 남쪽 끝에 살면서도 멀다 않고 해마다 한 번씩 현충원을 찾으셔서 묘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며 소맷자락으로 묘비를 닦다 눈물도 닦으셨다.

아들 이름 석 자 끝내 못 찾고 돌아가신 지 몇 해 지나서야 봄날의 선물 언니 곁에 오신 위패에 새겨진 이름 '양희수 병장'. 유해는 찾지 못했지만 슬프고 반가워 목놓아 울었다는 가족들, 깊고 차디찬 기슭에서 따뜻한 남쪽 고향 땅 그리워 영혼은 넘나들겠지요. 제삿날이면 빛바랜 사진 올려놓고 편히 잠드시라며 눈물로 밤을 새웠다 하신다.

많은 사연 안고 이곳에 계신 애국지사분들과 나라 위해 싸우시다가 잠들어 계신 묘비 앞에서 다짐해본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국을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붉은 꽃 지고 꽃대가 꺾어지던 6월 어느 날 가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 예쁜 꽃잎 모아서 곱고 아름다운 꽃이불 만들어 묘비 위에 덮어 드리고 싶다. 고이 잠드소서.

2018년 5월 13일
현충원에서

양 송 임
일성여자중고등학교 2학년

고등부
장려상

퍼즐

이름과 함께 살아온 시간 간추린
묘역들 사이 귀 기울이면
멀리서 아스라히 총성 들린다

문밖 나서기 전
수신인이 항상 같았던 편지 위로
희부연 글자 꾹꾹 눌러쓰던 사람들

전쟁터에서는 군인이었다가
집에서는 가장 혹은 아들이 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펄럭이는 국기 앞에 경례를 하면
손을 불러 흩어진 것들의 조각을 맞춘다
몇몇은 아직 찾지 못한

나가지 못하게 붙잡듯 밑창 질척이는 군화 고쳐 신고
바뀌는 풍경에 눈 뜰 새도 없이 뛰어나가던 사람들

그렇게 나는 그의 아이가 되어
투명해진 존재들과 손을 맞잡는다

박태현
김포 운양고등학교 2학년

고등부
장려상

그날의 그들

그대의 그 날은
붉게 물들어 무엇이 땅인지도 몰랐겠지
하늘이 붉게 보이기도 했겠지

순식간에 죽어가는 전우들의 모습이 두려웠겠지
우렁찬 소리와 함께
나도 죽으면 어쩌나 두려웠겠지

터지는 수류탄을 보며
떨리는 총구를 겨누며
누군가는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네
친구여, 저들이 던지는 탄에 맞으면
그것도 우리의 운명이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을지도 모르겠네
하늘이시여, 어째서 이런
가혹한 운명을 주셨습니까

고등부
장려상

무섭고 싫었겠지, 그날의 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지
붉게 물든 땅을 밟으며 두려워도
나라를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이 선하네

푸른 하늘, 활짝 핀 꽃, 작은 새싹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들 덕분일지도 모르겠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야 하네

잊지 말게, 이어가야 하네
이어가야 하네, 잊지 말게
잊는 것은 잃는 것이네

김 태 연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3학년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일반부
장려상

2015년 2월에 나의 조국,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최전방수호병으로 입대하여 영종도에서 1년 9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어언 예비역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쪽에서 사납게 철썩거리는 밤바다의 파도소리를 들으며 지난 수십 수백 년간 우리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애국지사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에 이어 나도 나라를 위해 군복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고, 멀지 않은 연평도 인근에서 연평해전으로 인해 순직한 내 나이 또래의 장병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쳐 밤바다에 같이 떠나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기간 복무를 마치고 자랑스럽게 전역한 후에도 조국을 위한 마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뒷산에 올라가 산책을 하며 돌멩이를 주워다가 호(壕)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체력단련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지내던 어느 봄날, 국립서울현충원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한 번 온 적이 있지만 전역하고 방문하는 현충원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엔 잘 보이지 않던 애국지사들의 묘가 아름다운 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도 놀라웠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관심있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내길을 따라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묘들도 더 찾

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충교를 지나 충혼당, 그리고 봉안식장을 지나니 처음 보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무후선열제단과 저의 첫만남이었습니다. 생소하기도, 아름답기도 하여 더욱 유심히 관찰해보았고, 무후선열제단의 의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였으나 후손이 없거나 유해마저 찾을 길이 없는 131위 순국선열의 위패를 봉안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 깊숙이부터 먹먹함이 차올랐습니다. 나의 후대에 이 아름다운 조국을 꼭 물려주리라는 사명감을 안고 투쟁했을 애국열사들, 하지만 후손도, 목숨을 기릴 유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제단 앞에서 묵념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역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좋고, 나라를 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좋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애국열사들을 위한 마음.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내 장터에서 3 · 1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 고종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헤이그 회의에 참석했던 이상설, 이위종 열사, 홍범도 장군 등 많은 분들이 계셨고, 저는 그중에서도 유관순 열사가 가장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매년 한 번씩 무후선열제단에 찾아뵙던 차에 오늘 백일장의 기회를 빌려 유관순 열사의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여동생이 있었다면 아마 독립운동 당시의 유관순 열사의 나이와 비슷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그 어리고 꽃다운 나이의 유관순 열사의 행동력과 강단은 지금 스물 네 살인 저의 행동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 유관순 열사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후손들이 애국을 실천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겠지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들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올바르게 공부하기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은 국립서울현충원 외에도 다른 곳과 이곳 무후선열제단에 모셔진 애국열사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국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유관순 열사의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멀지 않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더 자주 방문하여 찾아뵙고,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도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을 생각하고 애국열사분들에게 감사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사랑의 정신이 어려있는 현충원의 자연을 보며 글을 쓰는 것도 다 애국열사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지금도 나라의 안위를 위해 힘쓰는 우리 국군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 덕분에 가능한 사실임을 자각하며, 끝으로 군복무시절 저의 주임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떠오르며 저 또한 깊이 동감하는 하루입니다.

김경철
서울시 동작구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여기는 민족(民族)의 얼이 서린 곳
조국(祖國)과 함께 영원(永遠)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保護)하리라.

일반부
장려상

여기 국립서울현충원은 나의 아버지이자 선친(先親)을 비롯하여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호국영령(護國英靈)이 안장(安葬)되어 있는 곳이다. 내가 사는 곳이 관악구라서 틈나는대로 들러 아버지를 뵙는다. 나의 아버지는 충혼당(忠魂堂) 315175호에 안장되어 계신다. 벌써 3년이 흘렀다.

온새미로(*무연고 묘소 돌보기) 행사에서 맺어준 인연으로 37묘역 19674번 이기진 유공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 유공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러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내 가족이 이기진 유공자를 자주 찾을 것을 다짐한다.

무후선열제단(無後先烈祭壇)에 후손이 없어 돌봐주지 않는 유공자를 우리 전국민이 후손 되어 보살펴 드려야 한다.

그들이 조국을 사랑했듯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나의 자녀에게도 이기진 유공자를 자주 찾아뵐 것을 당부하겠다. 묘소에 먼지는 많은 지, 꽃은 제대로 꽂혀있는 지, 혹시 훼손되지는 않았는 지 자주 들여다보련다.

나는 3년 전까지 현충원에 대해 잘 몰랐다. 아니 관심이 별로 없었다. 가끔 찾아와도 대통령 묘소만 들렀었다. 그러나 이곳 현충원은 대통령 네 분을 포함해, 현충탑 지하에 참전(參戰)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유해를 찾지 못한 10만 4천여 위와 유해는 찾았으나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7천여 위는 각각 위패(位牌)와 납골(納骨)로 모셔져 있다. 1묘역부터 56묘역까지 5만 5천여 분은 비석으로 안장되어 있고, 납골시설인 충혼당(忠魂堂)에 하루에 2차례 안장식(安葬式)이 열린다. 또한 임시정부 요인과 국가유공자 등 약 18만여 위가 안장되어 있다.

그 많은 유공자들이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내 한몸 아끼지 않고 희생함으로써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제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거라 했다. 68년 전 서로를 향했던 총구(銃口)가 이제 남북한 정상이 악수하는 날이 왔다.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되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는다.

그리하여 북녘에 묻혀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호국영령(護國英靈)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라본다.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하늘에 산화(散華)한 용사(勇士)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모셔와야 한다. 그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래야 후배들도 기꺼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임들은 불멸(不滅)하는 민족혼(民族魂)의 상징(象徵)이다. 37묘역 이기진 유공자를 포함한 많은 유공자는 갓 스물을 넘길 피끓는 청춘이었다. 나 또한 군에 입대할 때 스물 한 살이었다. 만일 내가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전선에서 죽어갔을 많은 유공자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답해야 한다. 그토록 사랑해서 내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살아남은 우리가 어찌 소홀히 살 수 있겠는가!

충혼당의 선친(先親)은 오늘도 웃는 얼굴로 나를 맞는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힘이 없는 국민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나라를 지켜야한다고 하셨다. 백 번 옳은 말이고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공허(空虛)한 구호나 위장평화로는 절대 나라를 부강(富强)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우리 대통령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어야 했다.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는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CVID, 완전(完全)하고, 검증(檢證) 가능(可能)하며, 불가역(不可逆)적인 비핵화를 이뤄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平和)가 온다. 잊지 말자. 현충탑(顯忠塔)에 새겨진 문구 앞에 다짐하자.

여기는 민족(民族)의 얼이 서린 곳
조국(祖國)과 함께 영원(永遠)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保護)하리라.

2018년은 민족의 숙원(宿願)인 평화 통일의 기초(基礎)를 다진 원년(元年)이 되기를 모든 순국선열(殉國先烈) 및 호국영령(護國英靈) 앞에서 엄숙(嚴肅)히 선언해본다.

이복현
서울시 관악구

나라의 아들, 엄마의 자식

일반부
장려상

매년 북적이던 시기에 찾은 현충원을 조금은 조용한 오늘 찾아보니 감회가 남달랐다. 원고지를 받고 늘 가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보니 돗자리를 깔고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위치를 안내해주는 봉사자분들의 친절한 손짓, 내리쬐는 햇볕에 목이라도 축이라고 시원한 냉커피와 물을 내어주시는 분들의 모습이 없는 지금이 뭔가 서먹하다는 느낌까지 들게 만들었다.

현충원에는 큰외삼촌이 매년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처음에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엄마의 학창시절 빛바랜 사진첩에서나 발견할 수 있었던 외삼촌의 온기를 매년 현충원에 와야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하철 9호선이 다니기 이전부터 방문을 했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하면 나만의 착각인 걸까?

6월 6일이 되면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태극기가 가득한 미니 태극기 나무의 떨림을 따라 큰외삼촌의 묘까지 끊임없이 걸었다. 지금은 어른이 되어 어린이였던 시절보다는 발걸음 수가 많이 줄었지만 마음의 무게는 여느 때나 똑같았다. 다만 어릴 때는 그 무게가 더 무겁지 않았을까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목적지는 언덕 부근에 위치해 있었기에 걷다보면 어느 순간 더 노력하지 못하는 나의 다리를 한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마 참을성이 얕았던 어린시절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한번은 아빠한테 업어달라고 했다가 된통 혼난 적도 있었다. 그렇게 13번 숫자가 뚜렷이 쓰여 있는 곳으로 아빠의 뒤를 따르고, 처음 방문을 하고 지난 해 방문을 한 다음, 또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상하게 13번은 기억이 나는데 항상 길을 헤매듯 촘촘한 묘사이를 흘러가다 보면 앞쪽 중간 즈음에 묘비가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듯 반가움에 묘비를 손으로 스윽 만져보고, 아빠에게 슬쩍 '아빠, 병사의 뜻이 뭐야?'하고 물었던 기억도 난다. 군대에서

병사를 하셨다는 내용이 묘비 뒤에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나 혼자 현충원을 찾게 되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외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할머니는 맞벌이를 하던 부모님 대신에 우리 3남매를 돌봐주신 분이기에 애착이 남달랐다. 그때 엄마의 학창시절 사진첩을 처음 보게 되었던 것인데, 한참을 뒤적이며 엄마의 곱슬머리를 보고 박장대소 하다 멋들어진 군복을 입고 진한 눈썹으로 위엄함을 내보이던 사람이 찍힌 사진을 들고 흥분해서 외할머니께 뛰어가 물었었다.

"외할머니! 이 사람 엄마 옛날 남자 친구에요?"

그랬더니 숨을 한 번 고르고 마른 침을 두 번 삼킨 후에 외할머니는 '엄마의 큰 오빠, 우리한테는 큰 외삼촌'이라고 말씀해주셨다. 6남매 중에 막내 딸인 엄마도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다. 내가 좀 더 컸을 때에는 외삼촌이 군대에 가기 전에 사랑했고,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도 전해주셨다. 이랬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없다니, 나한테는 작지 않은 충격이었고 지금도 울컥울컥한다.

그래서 혼자라도 다녀오겠다고 한 것 같다. 왠지 모를 의무감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최근 사진을 들고 현충원의 외삼촌 묘를 찾아가 하늘나라에서 꼭 외할머니를 찾아달라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다.

내가 누군가의 딸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듯이, 나라의 아들로 최선을 다하다가 잠들어계신 우리 외삼촌도 우리 외할머니에게는 그냥 아들이었을 것이다. 어리광을 부려도, 잘하건 못하건 품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그런 평범한 아들이었기를 혹시 외할머니는 바라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두 분이 지금쯤 하늘에서 만나셨다면 지우고 있었을 그 시간들, 새길 수 있는 추억으로 행복하게 터 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싶다. 다만 나라의 아들이었기에 이전의 시간들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명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나라의 아들이었고, 외할머니께는 자식이었던 그 소중한 시간, 잊지 않고 올해 6월 6일에도 방문하고 싶다.

김효선
경기도 부천시

싱그러운 봄기운 가득한 현충원에서의 호국을 향한 다짐

일반부
장려상

인생에서 사계절은 무수히 많은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무지에서 시작하여 각성으로 마치게 되는 길고 긴 사계절 여정의 반복이다. 싱그러운 봄내음 사이로 경쾌하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맞이하며, 5월의 어느 봄날 현충원을 거닐며 잠시 눈을 감는다. 어느새 나는 2003년 5월 짧은 머리의 신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서있다.

돌이켜보면 애국심이라는 측면에서 무지했던 나는 단지 20대 초반에 군대 복무를 마치겠다는 인생계획에 따라 입대를 결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지금 내가 여기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바랐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반복되는 인생의 여정 속에 각성해나가는 것 같다. 아마 그것이 인간이 고등동물이라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계절이 바뀌고도 다시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과정을 거치며 부상 혹은 죽음의 위협에도 직면해보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조국이란 무엇인지, 나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땅을 수호해왔는 지에 대해서 조금씩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군대에서 맞는 세 번째 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자랑스러운 병장 계급장을 달고 제대를 할 수 있었다. 제대하는 날 위병

소를 나서면서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다.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토방위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나의 조국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처럼 좋은 선물을 선사해준 국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나는 한 가지 다짐을 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내 할 일을 하며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다짐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지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물어본다. 나는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듯 말문이 막혔다. 마땅한 핑계라도 떠오르지 않는다.

과거의 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할 무렵 내 발길은 어느덧 현충탑에 다다랐고 나의 의식은 다시 2018년 현재로 되돌아온다. 현충탑 내부에 설치된 위패봉안관에 있는 수많은 위패들과 사진들을 보면서 전장에서의 긴박했던 순간과 절규가 내 가슴속으로 깊이 전해져왔다. 군대에서 멈춰선 표적들을 보고 사격훈련을 할 때도 그 커다란 총소리와 총의 위력에 놀라고 긴장했는데 사진 속의 그들은 실제 전장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조국을 위해 총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강인한 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는가? 바로 옆에서 전우들이 죽어나가고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테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워야만 했을 것이다.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과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본다. 그들도 나와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고 푸른 꿈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나의 꿈도, 나의 가족도,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나의 본분을 다해서 조국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것 아니겠냐고 그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본다. 사진은 나를 보고 말없이 웃고 있는 듯했다.

현충탑을 지나 고개를 돌려 말없이 안장되어 있는 수많은 묘비들을 바라보며 문득 여기 잠들어계신 호국영령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지키려했던 나라는 어떤 모습의 나라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들의 후손들이 외세의 위협에서 조금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보가 튼튼한 나라의 모습을 꿈꾸시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유품전시관에 내 발걸음이 멈춰섰다. 피 묻은 태극기, 빛바랜 유품들, 결기에 가득 찬 모습의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사진들까지. 그 어느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하나하나의 유품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닌 채 나에게 말을 걸어왔고 난 조용히 경청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이곳은 여전히 후손들에게 있어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이다. 유품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곳, 유품전시관을 아우르는 적막과 엄숙함 속에서도 커다란 감동과 울림을 안겨다주었다. 그리고 호국이라는 두 글자가 머금고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 사계절은 순환하여 내년에도 봄이 올 것이다. 내년 봄에는 군대에서의 다짐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지로부터 각성으로 향하는 인생의 긴 수평선 사이에서 각성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기분이다.

김형곤
서울시 서초구

호국의 별은 무엇으로 빛나나

일반부
장려상

비 그친 오월의 주말, 가족들과 현충원을 찾았다. 호국문예행사에 참여한 많은 가족들이 곳곳에 모여앉아 현충원의 정적을 깨고 기분 좋은 시끄러움을 만들고 있다.

나는 현충관을 떠나 현충원 산책을 나섰다. 유품전시관에서 이곳 현충원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묘역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좌우로 열을 맞춘 비석들이 눈에 들어온다. 구역별로 나누어진 묘역을 걸으며 묘비에 새겨진 글자에 눈길을 돌려본다. 계급과 이름,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돌아가셨는 지가 적혀있다. 묘역을 지나는 길에 역대 대통령님들의 묘역도 지나고, 또 임시정부요인 묘역, 애국지사 묘역,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였으나 후손이 없거나 유해마저 찾을 길 없는 분들을 모신 무후선열제단을 비롯해 많은 추모시설물이 보였다.

현충원 경내를 거닐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다. 과연 호국의 별이 되신 분들은 무엇으로 빛을 낼까 하는 것이다.

이곳 현충원에 안장되신 분들은 시간과 장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셨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계신다. 일제강점기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쓰셨고, 한국전쟁 당시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이 땅 위에서 돌아가셨다. 또 조국의 부름을 받고 베트남(월남)에 파병되어 타국에서 돌아가셨던 분도 오천여 분이 계신다. 백여 년의 시간 속에서 국내와 월남을 비롯해 해외라는 장소적 차이를 떠나 다양한 분들이 동작동의 한 공간에 계신 것이었다. 이분들이 이곳에 계시면서 호국의 별이 되신 것은 우리가 고개 숙여 이분들을 추모하고 이분들께 감사해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자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혹여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호국의 별 되신 선열들의 빛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 완전히 빛을 잃고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묘역을 지나면서 군데군데 이른바 '특색'있는 분들의 안내판이 보였다. 참 좋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곳에 있는 다른 많은 분들은 누가 기억해주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다행히 묘역별로 협력기관이 있어서 관리와 기억을 이어가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각각의 묘비는 이를 기억해주는 후손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겠지만 또 상당수는 홀로 그 누구에 의해 기억되지 않고 잊혀져가고 있을 것이다. 젊은 날 돌아가신 분은 후손 없이 떠나신 분이 많으실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무연고' 묘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과 잊혀진다는 것은 어떤 다름이 있을까? 잊혀진다는 것은 슬픔이다. 기억된다는 것은 위안일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계신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각의 묘비의 주인공을 생각하고 기억해준다면 그 분들은 호국의 별로서 더 밝게 빛날 것이다.

한편으론 이분들의 각각의 '공훈'에 대해 자료를 만들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작업도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호국의 별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이분들의 죽음을 더 값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죽음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지신 분들이기에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여드린다면 얼마나 좋아들 하실까! 이것이 이 땅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5월의 따스한 주말, 현충원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호국의 별 되신 선인들의 생애와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호국의 별 되신 분들은 무엇으로 빛날까 생각해 보았다.

해와 달이 지켜주는 이곳 동작동 현충원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충분히 빛나고 계신다. 그러나 그 빛이 더 오래 오래 밝고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었다. 그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들의 활동과 생애를 기록하고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 우리 민족이 참으로 살 만한 나라,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분들의 죽음의 의미를 빛낼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후손된 우리의 시대적 책무이자 사명이 될 것이다.

어찌보면 참으로 단순한 이 진리를 5월 현충원에서 다시금 깨닫는 뜻깊은 하루였다.

이 신 재
경기도 수원시

결국 새 살은 돋는다

초등부
가작

호국전시관을 둘러 보았다. 그곳에는 애국지사들의 업적, 시대상 등을 알 수 있었지만 나는 자연스레 그들의 나이에 주목하게 되었다. 34세, 20세, 25세 심지어 15세, 기껏해야 나보다 일곱, 여덟 살 많으신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북한군과 싸웠다니. 머리가 뭐에 얻어맞은 듯이 멍해졌다.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애국지사나 참전용사분들이 나와 같은 나이대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라면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봄의 꽃보다 더 아름다웠고 여름의 녹음보다 더 싱그러웠던 청춘 대신 조국의 평화와 안정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많은 전시품들이 내 가슴을 두드렸지만 그중에서도 걸음을 뗄 수 없게 만든 것이 있다. 군모였다. 녹이 슬고 투박한 군모였지만 보자마자 저 군모를 썼던 군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펼쳐졌다. 고향과 가족을 두고 살기 위해 모르는 이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죽어가는 동료에게 손 한번 내밀어주지 못한 그 전쟁터 속 군인은 지금 살아 계실까.

우리나라는 겨우 6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열병을 앓았었다. 일제의 악랄한 고문과 침탈을 겨우 이겨내니 서로 달랐던 사상 때문에 광기 어린 비극이 영원처럼 계속될 전쟁을 했다. 동족 간 살육을 했고 서로를 증오했다. 그 증오는 현대에 들어도 좀처럼 식혀지지 않아 수차례 전쟁의 위기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 선이 생겨났다.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은 것을 외면한다. 한국전쟁의 전개는 알지만 참전용사의 이름은 모르고, 2002년 연평해전은 알지만 군인들의 청춘을 모른다. 시험을 위해서 역사를 알아가기보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역사를 알아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 한 인터넷 사이트에 현충원을 검색해 보면 나오는 소개 문구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이 문구조차 위대하고 치열했던 위인들의 삶을 너무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빼앗긴 나라를 지킨 꽃, 무너진 나라를 살린 꽃, 나라를 살리다 져 버린 꽃, 나라가 잘못해 져 버린 꽃, 많은 꽃들이 묻힌 곳, 그곳이 바로 아직도 전쟁 중인 대한민국이다.

최근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었다.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만나 한반도의 발전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너무나 깜깜해 앞이 보이지 않던 대한민국의 미래에 별 하나가 뜬 것이다. 현충원에는 더 이상 이토록 많은 희생자가 묻히지 않을 것이다. 현충원은 더 이상 비극과 아픔을 상기시키는 곳이 아닌 국민의 휴식 공간이 될 것이다. 미약한 별빛의 열들이 모여 결국엔 밤하늘을 밝힌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역시 미약하더라도 힘을 합쳐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유 태 경
서울목원초등학교 6학년

대한민국 수호신

현충원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수호신들이
잠들어 계시네

수호신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
죽게 되어서
현충원에 묻히셨네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 주신
대통령, 국가유공자들도
이곳에 묻히셨네

대한민국 수호신 덕분에
내가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이네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호신들
우리나라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준 현
서울가동초등학교 3학년

초등부
가작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오늘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곳, 현충원에 왔다. 이곳에 와서 주제를 보니 1번 주제보다는 2번 주제가 더 마음에 와닿았다. 그 이유는 '무후선열제단'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 깊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무후선열제단이란, 독립운동, 민주주의운동, 남과 북의 전쟁 등에서 가족, 친척이 없거나 못 찾는 분들의 영혼들이 있는 공동묘지 같은 곳이다. 이곳에 묻히신 많은 분들은 기억되지 못 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셨다. 나의 할아버지도 국가유공자셔서 이곳에 묻히신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엄마도 있고 나도 있으니 무후선열제단에 영혼만이 묻히신 분들보단 덜 외롭고 쓸쓸할 것이다.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들은 어떨까? 아마 너무나도 속상할것이다.

우리들은 그런 기억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몇몇 어른들은 네가 어떻게 하냐고, 막 꼬치꼬치 물어볼 것이다. 아직 5학년밖에 안 된 어린애지만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그중 나에게 가장 큰 슬픔,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이것. 바로 외로움. 학교에선 남자애가 지속적으로 놀려 속상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힘들고 힘든 결정을 한 이들을 보니 나의 고민이 너무나 하찮게 보인다. 내가 만약 행복하다면?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집 온 가족이,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극소수, 나 혼자만의 문제다. 우리는 매년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미사를 보고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이분들은 어떨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분들은 매일같이 속상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낼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든 선택을 한 분들을 생각해야 한다. 가족이 없으면 국가나 사회가 그분

초등부
가작

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만약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무후선열제단에 영혼이 묻히신, 기억 못 하는 많은 이들 덕분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위해 힘든 결정을 하고 돌아가셨지만, 생각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당연한 건 줄로만 알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없다는 게 그들의 최후.

나는 이곳에 와서 많이 반성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앞으로는 나의 사소한 문제, 고민 등을 이것을 생각하며 이분들과 차마 이곳에 묻히지도 못한 분들을 생각하며 매일 매일 살아야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이들을 생각해주고 존경하면 이들도 행복할 것이다. 만약 내가 이들 중 한 분의 후손이 된다면 아주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울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까지 천국에서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수 민
서울잠현초등학교 5학년

우리 할아버지

처음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께서
자주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궁금했어요
국가유공자가 무슨 말인지…

나라를 위해 살아오시며
전쟁을 하셨고
조국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희생을 하신
우리 할아버지

그 희생정신을 본받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 수 연
안산 양지초등학교 3학년

초등부
가작

당신을 위한 한 줄기 빛

초등부
가작

늘 행복한 생활을 하는 나. 나는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즐겁게 공부를 한다.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에 간 뒤, 집에 돌아와 쉬고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다시 편안히 잔다. 이게 행복한 내 하루의 끝이다. 이런 나에게 고민이란 고작 시험보기 싫다, 학원가기 싫다는 것일 뿐이다. 난 이렇게 하찮은 고민으로 생활하지만 전쟁이 일어나 온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이런 고민은 그저 사치일 뿐이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온 나라를 점령했을 때 지금의 나와 같은 복에 겨운 고민이 아닌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를 구하겠다는 큰 뜻을 가졌던 분들이 계시다.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목숨, 가족, 행복, 자유 등을 돌보지 않고 후손을 남겨서 자신을 기억하게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분들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내가 그분들 중 한 분을 위해 후손이 되어 드리고 싶다.

우선, 일 년 중 하루를 정해 그분을 기리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제사상을 차리고 싶다. 매년 왕할머니 제사를 지내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듯이 그분께 감사하고 싶다.

다음으로, 틈나는대로 '무후선열제단'을 방문하겠다. 용돈을 모아 꽃도 사고, 크림빵도 사서 하늘에서만은 기쁘고 행복해지시도록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겠다. 우리나라에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어떤 분들이 숭고한 희생을 했는지 알아나가겠다.

영화 '코코'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있다. 거기서는 지상에 남은 가족이 자신을 기억해 준다면 죽은 사람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무후선열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분들이 어둠속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젠 내가 그분의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 드리겠다.

박 연 아
서울잠현초등학교 3학년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초등부
가작

따스한 봄날, 가족과 현충원 둘레길을 돌던 중 한국전쟁에 참여하신 장병들의 묘역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분들의 이름과 계급이 새겨진 비석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 널리 펴져 있는 땅에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비석들이 오늘도 호국영령들을 호위병처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듯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 철조망으로 수십 년 간 막혀져 있던 한반도, 하지만 지금도 철조망은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다.

60여 년 전인 1950년, 한국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장병들,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들이 가장 바라던 게 무엇이었을까? 호랑이처럼 생긴 우리의 한반도가 전쟁으로가 아닌 평화의 힘, 즉 햇볕정책의 힘으로 사랑을 주고받게 되어 서로 사이 좋게 철조망을 없애고 하나가 되는 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자 꿈이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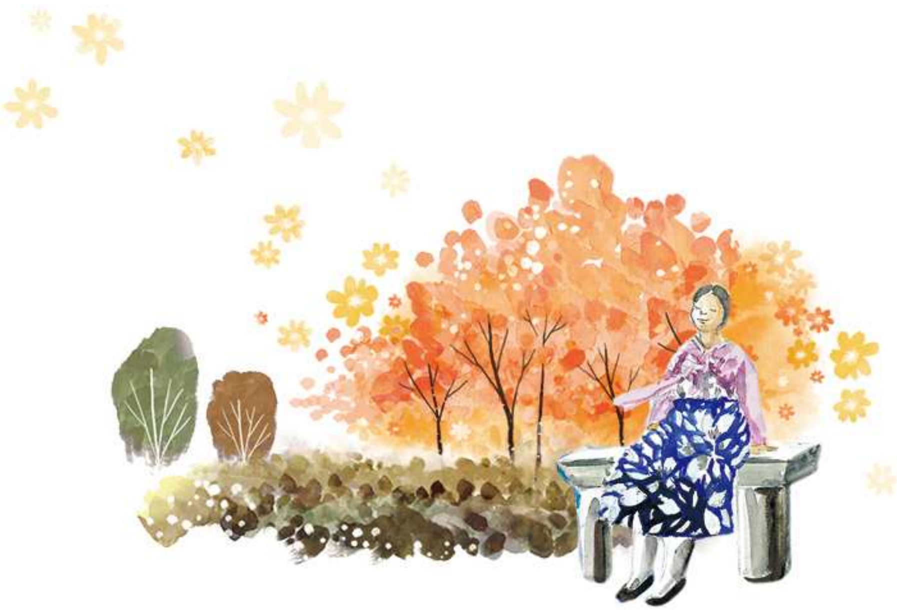
통일, 한자로 ‘합칠 통(統)’과 ‘한 일(一)’이다. 두 글자의 뜻을 합치면 ‘하나로 합치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조금 늦은 지금 21세기에 꼭 성공해야 하는 목표이자, 희망,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를 지키신 호국영령들에게 조용히 묵념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리고 묘역을 지나 현충원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무력행위와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 정상 회담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 기회를 잘 살려 통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루 빨리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하나로 ‘한국’이라고 고쳐 쓸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통일이 된다면 살아서 ‘전쟁’이라는 괴로움 속에 있었던 호국영령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새 소리 나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무성한 정원 같은 현충원에서 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담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태 호
서울방배초등학교 4학년



묘역의 언저리를 맴돌며

중학부
가작

꽃이 피고지는
따뜻한 봄에
핏빛으로 물들었던
마음 아픈
전쟁에서
희생했던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을 위해

하얀 국화꽃을 깨우고
묘역의 언저리를 맴돌며
조국을 위해 몸바쳐 싸운
이들의 마음을

그들의 조국을 위해
시간을 참아낸
뜨거운 열정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간절하였기에
그 간절함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해준
그들에게 감사를

우리의 아픈 역사를
세월을 통해
빛 바래지 않도록
한민족이 하나되어
영원히 빛나게 간직하기를…

김 인 아
송파중학교 1학년

햇살 아래, 당신께 감사합니다

중학부
가작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항상 카리스마가 넘쳐 흐르시던 사회 선생님께서 어느 날 싱거운 질문을 하나 던지셨다.
"쌤 생일이에요?"
장난기 많은 한 아이가 소리쳤다. 교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생님께서는 '아니 그거 말고'라고 하시며 다시 우리를 쳐다보셨다. 조회시간에도, 몇 시간 전 수학 시간에도 이슈가 됐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몇몇 아이들이 큰소리로 대답을 했다.
"남북정상회담하는 날이요!"
대답을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다. 그러고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 정상회담 영상을 보여주셨다.

얼마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사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영상 속에는 북한의 정상과 남한의 정상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남과 북을 나누는 경계선을 넘어 다니기도 했다. TV에서 가끔 보던 북한의 정상이 남한 땅을 밟고 서 있다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TV에서 가끔 보던 옥류관의 평양냉면이 이날 저녁 만찬에 올라 사람들이 그렇게 냉면을 찾았다고 한다. 한때는 서로 경계하고 적대시하며 지냈지만 판문점에서도 냉면, 남한에서도 냉면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이번엔 한 동포, 한 가족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외증조할아버지가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져 계신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셨던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당시 다리에 총탄을 맞으셨다

고 한다. 내가 5살 때 돌아가셔서 얼굴은 가물가물하지만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어 다니시던 모습, 나를 귀여워 해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할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한국전쟁 때 목숨을 바치셨던 그 노력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싸우셨던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까? 열심히 뉴스를 보는 나를 지켜보시며 허허허 웃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이야기하며 북한과, 주변국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는 것도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한평생을 바쳐서 하셨던 그 노력 덕분이지 않을까.

나라가 없는 삶을 상상해본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시리아인들처럼 삶의 터전을 잃고 세계를 헤매는 난민이라면?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웃을 여유도 없고,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내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 이곳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모든 분들도 외증조할아버지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시다 돌아가신 분들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평범한 일상들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여기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지도. '나'를 위한 일들로 일상을 가득 채운 나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이분들이 존경스럽고 대단했다. 그분들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할아버지를 떠올리니 입가에 뿌듯한 미소가 지어졌다.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았다.

오늘 일부러 현충원에 조금 일찍 도착해 애국지사 묘역과 장병 묘역을 천천히 걸어보았다. 남북정상회담부터 내 기억 속 외증조할아버지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수많은 묘역과 수많은 묘비와 수많은 이름들 중 꽃 화분이 놓여있는 곳도 있었지만 쓸쓸해 보이는 텅 빈 묘비들도 있었다. 이 쓸쓸한 묘비들의 주인들이 서글퍼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건만, 묘비에 꽃 한 송이 없을 줄이야. 한 묘지 앞에 멈춰 섰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마음속으로 전했다. 호국영령, 순국선열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주었는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들인지 새삼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던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투사가 목숨을 바쳐 싸우셨던 거고, 한국전쟁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고향을 떠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은 없겠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매 순간 열심히 하며 나라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겠다. 내가 내일의 나를 꿈꿀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학교 친구들과 다시 현충원에 온다. 잡초 뽑기와 묘비 닦기 봉사활동이 있다. 그때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 중 한 분이신 우리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분들의 희생과 고귀한 혼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묘비를 닦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저 텅 빈 묘비들을 감사함으로 채워드려야지. 따사로운 햇살에 묘비에 맺힌 물방울이 반짝였다.

이 예 현
동일중학교 1학년

고개를 돌아보다

나는 휙, 하고 고개를 돌아본다. 빗방울이 어린 창문과 물웅덩이로 가득한 운동장. 그리고 그 위에 잔뜩 피어있는 우산들. 비가 온 다음 날의 정석 같은 모습이다. 우뚝 선 학교 건물이 아스라히 일렁였다. 나는 휴대폰을 켜 시간을 확인하고 현충원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학교에선 매년 현충원에 방문했다. 주로 비석을 닦기 위해 갔는데, 이런 날은 으레 빨리 끝나는지라 아이들이 좋아라 하곤 했다. 작년엔 날씨가 좋았는데, 나는 축축한 운동장을 보며 궁시렁거렸다. 아이들이 다 탔는지 안전벨트를 매라는 선생님의 고함이 들려왔다. 나는 안전벨트를 조금 헐렁하게 맨 후 날씨를 확인했다. 오전 중으로 해가 뜰 거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나는 하늘에 뜬 한 움큼의 먹구름을 응시하며 잠에 들었다.

내가 처음 현충원에 간 때는 초등학생 무렵이었다. 하늘이 아주 높던 가을이었는데, 이곳저곳에서 휘날리던 태극기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할아버지께선 그때 끝없이 펼쳐진 장병 묘역을 보며, "여기 잠드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재훈이도 태어나지 못했을겨."라며 날 다독였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나의 모습에 아빠는 슈퍼맨 같은 분들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나도 저분들같이 되고 싶다는 철없는 손주의 말에 할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셨다.

눈을 떠보니 버스는 현충원 주차장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 물감으로 칠해져 있었다. 나는 옆자리에서 침을 줄줄 흘리며 자는 친구를 깨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찌뿌둥한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가방을 대충 둘러메곤 밖으로 향했다.

현충원도 빗물에 잠겨 있었다. 축축한 벤치와 한껏 젖은 풀숲, 그리고 썰렁한 주차장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현충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훨씬 더 엄숙하고도 진중한 분위기가 원 전체에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조용히 묵념했다. 멀리 태극기가 내 묵념에 답하듯 거세게 휘날렸다.

우리 반이 맡은 구역은 3묘역이었다. 우리는 양옆으로 깊게 도랑이 파인 길을 따라 올라갔다. 언덕 위로 뻗은 소나무들과 계단식으로 나란히 줄 서 있는 묘역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도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묘역에 올랐다. 풀잎마다 빗방울을 품고 있고 그 풀잎들 사이로 비석들이 질서 있게 위치했다. 나는 조심스레 수건을 쥔 손을 비석에 댔다. 차갑고 울퉁불퉁한 표면 사이로 삶의 굴곡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수건으로 표면을 닦자, 새겨진 이름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다음 비석을 닦았다. 또다시 빗물이 흘러내렸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웅들이, 여기 이 비석들 위의 몇 글자만 남겨놓고 스러져 갔다. 나는 다시 비석을 닦는다. 표면을 쓸어내리고, 새겨진 글자들을 매끄럽게 하고, 주변의 쓰레기들을 담았다. 비석을 닦을수록, 먹구름이 하나둘 걷히는 느낌이 들었다.

문득 저분들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았다. 아마 침대에서의 노곤함도, 부드러운 빵의 감촉도, 편하게 입고 다니는 츄리닝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소나무 향기가 진하게 풍겼다. 비석을 다 닦고 나자,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각자 수건을 접고 묘역을 빠져나왔다.

나는 휙, 하고 고개를 돌아본다. 지저귀는 새와 푸른 빛을 뽐내는 풀밭. 그리고 그 위를 비추는 따뜻한 햇살. 햇살 아래에는 셀 수 없는 호국영령들께서 영원한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최재훈
양천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
가작

이름에게

누군가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절반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누군가를 만나면 형식상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이름이고, 짧게 스친 인연일지라도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나는 꼭 이름을 묻는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보다 이름을 조그맣게 불러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백일장 글제를 보고 나는 무후선열제단에 찾아갔다. 나는 지금까지 현충원에 '무후선열제단'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고 보니 같은 순국선열이라고 해도 제각기 이름도 다르고, 그들의 삶도 다 같을 리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후선열제단은 높은 곳에 있어 오르기 힘들었지만, 후손이 없거나 유해마저 찾을 길이 없는 131위의 순국선열 위패를 보니 힘들었던 게 사라졌다. 3.1 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열사이지만, 무후선열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유관순 열사는 아우내 장터에서 목소리를 높여 연설을 하였지만, 만세 운동을 진행하면서 모친과 부친을 모두 잃었다고 한다. 또 태평양 전쟁과 대일 전쟁에 참전한 한국광복군의 위패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했던 이상설, 이위종 열사의 위패와 정의부 총사령관 오동진 장군 등의 여러 독립유공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난 것처럼 같은 자리에서 한참을 제단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싶었다. 나는 131위 순국선열의 후손이다. 무후선열들은 후손이 없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그들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무후선열 중에서도 유관순 열사의 각별한 후손이 되고 싶다. 같은 여성으로서 유관순 열사를 존경하기 때문이다. 열사가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은 유관순 열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할 것인가."

열사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왜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네놈들은 천벌을 받게 되어서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열사는 옥중에서 만세를 외쳤다. 당시 열사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린데, 열사의 기백은 뭇 성인 못지않았다. 나는 유관순 열사의 후손으로서 앞으로도 열사의 진취적인 기상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라면 유관순 열사처럼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눈을 감고 그들의 이름을 떠올린다. 그들의 삶이 하나둘씩 펼쳐진다. 그들이 반세기 동안 피눈물을 흘려준 덕분에 내가 현재 걱정 없이 잘살고 있는 것이다. 치열하게 사는 삶 속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아야겠다. 나는 무후순국선열들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므로 그들의 이름에 말을 건다. 감사했다고, 내가 당신의 후손이 될 테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무후선열제단을 내려오면서도 많은 이름이 나의 마음에 박혀 빛을 내고 있었다.

김주은
진명여자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
가작

그들을 위한 편지

숱 없는 나무가 바람에 나부낀다. 곳곳엔 고유의 색을 가진 어여쁜 꽃도 피어있다. 따뜻한 온기가 우리 주위에 머무를 때면, 아빠와 나는 현충원을 찾는다. 현충원에는 수많은 아빠의 친구들과 아끼는 전우들이 있다. 그들의 숨결은 깊고 깊은 땅 아래 잠들어 있다. 아빠는 끝없이 펼쳐진 묘비들을 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다. 나는 그 시간을 '그들을 위한 편지'라고 이름 붙였다. 아빠의 사박사박 걸음 소리가 이곳에 왔다는 인사인 것 같아서였다. 오직 침묵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온기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은 나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나의 아빠는 부사관이셨다. 최전방에 서서 누군가 우리 국민들을 해치진 않을까 하며 지키는 일이 아빠의 일이었다. 계룡산 끝자락에서 다른 전우들과 함께 비가 올 땐 옷 안에 스며드는 빗물을 적시며, 눈이 올 땐 하얀 얼음 알갱이들을 군복에 묻혀가며, 그렇게 국민을 지키셨다. 나는 줄곧 아빠를 겁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언제나 널따란 등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 하지만 아빠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묘비 앞으로 다가가 내게 말씀하셨다. "깜깜한 밤에 홀로 계룡산 길을 오를 때면 늘 사방을 살펴야 했어. 누군가 나타나 내 가슴에 총을 겨누지는 않을까 하면서 말이야. 그 시간은 너무 고독해서 나를 잡아먹을 기세였지." 아빠는 풀밭에 돗자리도 펴지 않고 앉아서 거칠거칠한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묘비에 묻어있던 먼지들이 아빠의 손길에 훌훌 떨어져 내렸다. 아빠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나는 가지고 온 꽃송이들을 병 안에 꽂아 넣었다. 마침 우리에게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고맙다는 말을 대신한 것 같아 나는 설핏 웃음이 나왔다. 아빠도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에게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셨다.

나는 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호되고, 고된 것인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쏟아지는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내가 온전히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현충원에 들어서면 그 서러움들이 내게도 전해져 마음을 짓누른다. 나는 아빠의 거친 손등과 갈라진 발끝 같은 것들을 보며 서러움에 대해서 상상하곤 한다. 거친 땅길 앞에 굴하지 않고 답답한 군화를 신고 걷던 그들의 땀방울들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아무리 굳건한 군인이었을지라도 그들 또한 두려움을 마음 한구석에 숨기고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오직 우리들을 위해 철저히 감추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신 분들이다. 아빠는 늘 내게 말씀하셨다. 그곳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오직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고. 그 마음 하나면 충분했다고.

나는 그들의 빛나는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쳤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울컥했다. 여태까지 내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수많은 군인들을 외면한 것 같아 울적했다. 나는 묘비들을 앞에 두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그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였다. 아빠는 고개 숙인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고독을 견디기 위해 불렀던 노래는 최후의 5분이었지. 그 노래가 계룡산 정상까지 울려퍼질 때면 내 청춘이 같이 노래했단다. 그런 날들이 있었지, 나한테."

아빠는 최후의 5분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셨다. 아빠의 깊고 낮은 노랫소리가 적막을 채웠다. 그 소리는 잊지 못할 나의 순간이다. 부디, 아빠의 노래를 통해 우리의 편지가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바람결 따라 울리는 선율이 널리 퍼지기를. 멀지 않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류 미 란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
가작

불효자

고등부
가작

푸른 하늘은 암살자처럼 하얀 구름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미세먼지를 머금은 눅눅한 공기,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몸이 찌뿌듯해지는 것 같았다. 간간히 풍겨오는 적적한 흙냄새.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 늘 아버지가 술에 취하시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답을 못 드리고 빈 술잔만 채워드렸다. 나의 앞에는 떡대 있는 젊은 남성의 뒷모습이 아닌 구부정하게 휘어버린 중년 남성의 뒷모습뿐이었다. 재촉하듯 빨리 오라는 담배에 절어버린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그제야 걸음을 재촉한다.

돌벽을 깎아 만든 것 같은 애국지사와 장병들의 모습. 착잡하다는 감정보다는 웅장하다는 느낌이 먼저 든다. 앞에 있는 거대한 향로와 그 옆에 있는 향 부스러기가 들어있는 통을 보고 이제야 착잡한 감정이 돋아난다. 아버지는 묵묵히 향 부스러기를 넣고 묵념을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이미 저 멀리서 담뱃갑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손끝에 걸친 담배가 크게 요동친다.

아버지는 공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셨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았다. 매일 바위같이 묵묵부답하던 아버지셨는데, 오늘따라 달라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와 어색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집을 떠나 독립을 하라고 하면 미련 없이 집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을 나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들어갔다.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솔직하게 길을 조금 헤맸다. 하지만 아버지는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내시고는 먼지 묻은 창틀을 털어내셨다. 아버지는 착잡한 표정으로 창 너머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묵념을 하셨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묫자리조차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아버지의 묵념이 끝났어도 나는 한참을 눈을 뜨지 못했다. 아버지와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아직도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정신 차리라는 듯 주머니에서 짤랑 소리를 내던 동전을 꺼내 커피 한 잔을 뽑으셨다. 나는 멍 때리듯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한 잔 먹을 거냐며 백 원짜리 세 개를 건네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아버지는 '싫으면 말고'라며 중얼거리셨다. 아버지는 커피를 한 입 마시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중년 부부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중얼거리듯 '아들아 사진 한 장 찍을까'라고 제안하셨다. 나는 '사진은 무슨, 맨날 오는 곳이면서'라고 단칼에 거절했다. 아버지는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시고는 나의 등짝을 후려치셨다. 동시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묵념하자고 하셨다.

나는 따끔거리던 등을 문지르며 묵념을 했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조상님에게 고해성사하듯 한 가지 질문을 했다.

'나는 불효자입니까?'

마음속이 공허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뜨고 머리를 긁적이며 이어폰을 썼다. 아버지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경쾌한 리듬이 분위기를 산뜻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생각은 흩어져간다. 어느샌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간다.

남 병 연
인천 신송고등학교 3학년

정상

내가 현충원에 처음 온 건 초등학교 때였다. 그때는 이곳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다리 아프다고 찡찡대는 어린아이였으니까. 지금의 나는 길게 펼쳐져 있는 장병 묘역을 보고 숨이 막혔다. 각을 맞춰 나란히 서 있는 묘를 보며 커다란 중압감에 숙연해졌다. 나는 노트를 챙겨서 묘가 펼쳐진 길을 걸었다. 저 높은 곳까지 자리 잡은 묘를 보며 나는 끝까지 올라가 보고 싶었다. 그냥 저 정상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일직선으로 펼쳐진 길. 양옆으로 앙상하게 뻗은 나무들 뒤로 보이는 빽빽한 묘. 나는 그 길을 계속 걸었다.

쭉 늘어선 길 끝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빗자루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어느 아이의 아빠에게 물었다.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묘 옆에 있는 낙엽들을 쓸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움켜쥐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 찡찡거렸던 나와는 다르게 의젓해 보였다. 아이들의 옆은 어느새 낙엽을 담은 마대가 뚱뚱해졌다.

나는 멀뚱히 서 있다가 어느 부자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빠는 묘를 보며 말했다.

“1931년에 살아서 1951년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사신 걸까?”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20년이라며 소리쳤다.

“그럼 21살에 돌아가신 거네.”

아빠는 숙연해졌다. 나도 더 무거워졌다. 그래도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묘 옆 도랑에는 물이 흘렀다. 돌과 부딪치며 청아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묘 사이사이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둥그렇게 깎인 묘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 그 옆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돗자리를 깔고 밥을 먹고 있었다. 절을 하는 가족들도 보였다. 모두 기리는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똑같았다. 나도 나무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 지문 틈으로 나무의 주름이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손처럼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그러다 꿩을 보았다. 뜬금없이 나타난 꿩. 초록색 머리에 빨간 얼굴을 한 모습이 신비로웠다.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들었을 때 꿩은 산 위로 올라가 버렸다. 이제 내 앞은 산으로 막혀있었다. 내가 원했던 정상이다. 묘의 끝, 나는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촘촘히 점 찍혀 있는 묘들 건너에 높이 솟은 건물들이 있었다. 하지만 작게 솟은 묘보다 작아 보였다. 분주히 움직이는 개미만한 차들, 먼지만한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움직인다. 나도 그렇다.

지금 내 앞에 멈춰 있는 사람들. 한 때 열정을 불태워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보며, 나도 잠시 멈췄다. 내가 움직이는,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지. 나는 정상에서 그분들의 숨이 담긴 바람을 마시며 되뇐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다. 조금은 더 살기 좋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박 준 형
인천 부개고등학교 3학년

유리관 안의 나방

문득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 날개가 달린 동물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른 건 유리관 안에서 유유히 날개를 퍼덕이는 나방을 보고 나서였다. 나방은 마치 자신이 유리관 안에 갇혔다는 걸 모른 채, 무척이나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유리창 안의 옛 군복이며 유품들도 나방의 날갯짓에 떨어지는 가루들에 덮일 것만 같았다. 그렇게 나방은 마치 이들을 위로하려는 듯 한참을 갇힌 채 날고 있었다.

예전에 할아버지는 나와 함께 이곳 현충원으로 종종 산책을 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속속들이 솟아있는 회색 묘비 사이를 거닐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옛 친구들을 생각하며 가끔 친구들 얘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친구는 편지를 보내왔고, 그중 몇 명은 끝내 볼 수 없었다든지... 사실 그때 들은 얘기들은 나에게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나에게 멀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씁쓸한 할아버지의 회상들이 나에게 와닿게 된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작은 나방을 보았다고 했다. 작은 나방은 할아버지의 위에서 날갯짓했다고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 나방은 자신의 전우들이라고. 그 날갯짓은 전우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고.

전시관을 나온 후 향한 곳은 묘비들 사이의 길이었다. 할아버지는 이곳을 거닐며 묻혀있는 전우들을 보았을 것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는 한 무명용사의 묘비를 보았다. 마치 옥칠을 한 듯 하얗게 빛나던 묘비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나방이 날개를 접은 채, 고이 앉아있었다. 나방의 날개도 같이 빛나는 건 마찬가지였다.

고등부
가작

손 주 형
잠일고등학교 2학년

대한민국을 품고

일반부
가작

아주 어렸을 때 현충원에서 선생님 손에 이끌려 묵념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나의 아이들이 그 나이가 되었고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추억의 소시지가 들어간 도시락을 싸서 함께 가보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현충원에 다시 오게 되었다.

아침부터 흐린 날씨였지만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기후에는 비 온 뒤가 더 상쾌하였다. 맑은 촉촉함이 어려진 현충원은 더 순수하고 애틋해진 것 같기도 하였다.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묘가 오와 열을 맞춰서 열병하는 것처럼 그 끝을 알 수가 없었다.

지금껏 분단된 나라에 살면서도 아픈 현실의 슬픔을 실감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오늘 수많은 묘들 앞에 서게 되니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이 작은 나라가 버텨주고 있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느껴지면서 한결 더 숙연해졌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터전을 목숨으로 지켜왔던 수많은 선열 중에서도 일부만이 여기에 안장되었을 뿐인데 이렇게 끝도 없다니…
이름도 없고 꽃 한송이조차 없이 놓여있는 묘들을 보면서 이 많은 목숨들이 바쳐질 만큼 우리 후손들이 가치가 있었던가! 당장 나조차도 그럴 만큼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른 아침부터 부산을 떤 덕분인지 현충원에 일찍 도착하니 여유가 있어서 유품전시관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독립운동이나

6 · 25전쟁 당시에 썼던 무기나 물건들도 있었지만 선열들께서 생활에 사용했던 물품이나 일기, 편지 등도 전시되어 있었다.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정신의 근간인 민족의 얼과 사명감으로 완전 무장한 분들이기에 매사 모든 삶이 국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가족을 생각하는 애틋함은 편지를 조용히 읽기만하여도 눈물이 날만큼 깊었다. 그럼에도 편지를 받는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깊은 그리움조차도 절제하면서 언제 사라질 지 모르는 삶에 대한 불안과도 싸워야하는 처절하게 고독하면서도 투철한 의지마저 느껴졌다.

어느 한 편지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결코 잘 쓴 문장의 편지도 아니었다.'간밤의 꿈에는 몇 달 만에 어머니를 상견하여 울었으나 그것은 봄꿈이었던가'
1953년 6월 14일 정찬오 중사가 야전의 싸움터에서 쓴 글이라 하는데 기력이 떨어지는 어머님을 걱정하는 사무치는 그리움이 효성이 지극한 아들임을 절실히 느끼게 만든다. 또한 남편을 10년이 넘게 기다리면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며 아내가 쓴 편지에는 백 년 동거를 맹세했던 남편이 십 년 동거조차도 하지 못함에 원망과 그리움이 젖어있다.
'어린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간 사람이 자식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일이학년이 되도록 소식조차 없단 말이오!'
받는 주인도 없는 이 편지는 아직도 유품전시관에서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비단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기에 안장되어 있는 선열뿐만 아니라 여기에 묻히지 못하고 전국 혹은 해외까지 흩어져 이름 모를 산밑에 묻혀져 계신 분들까지가 순국선열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할 것이다. 이들을 참고 기다려주고 이들 대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키워내신 모든 가족들이 포함된 우리민족 모두가 독립운동가이고 참전용사였던 용기와 희생 그 자체였다.

이 짧은 글에 나의 작은 글 재주로 오늘 받은 내 마음의 전부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현충원에서 느낀 묵직하고도 충직한 고귀함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로운 것이라 생각하며 내년에 현충원에서 다시 맞을 미래를 조용히 기약해 본다.

장석환
경기도 수원시

묻혀진 유해

일반부
가작

우린
가족을 위해
마을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어섰다
싸웠다
쓰러졌다

펄펄 끓는
혈기 하나로
우리들은 적과 싸웠다

빗발치는 총탄과
펑펑 쏟아지는 포탄 속을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끝내 우리들은
피 흘리고 쓰러졌다

치열했던
그날 전투 현장에서
전우들과 함께
우리들은
땅에 묻혔다

그렇게 수십 년
눈과 비와 바람으로
흙이 되었고
뼈만 남아서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하나 둘
같이 누웠던 전우들이
현충원으로 돌아가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려다
전우들과 홀로 떨어져 누운
나의 유해는
그대로 묻혀졌다

역사 속에 묻힌
그날의 전투
그날의 전우
나는 지금
그날의 전투 현장에
묻혀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이곳은
무성하게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나를 찾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해마다
봄이 오면
소쩍새만
내 곁에서 울다가 갔다

나는
그날의 전투 현장에
묻혀진 유해
역사의 증인으로 남아있다

김관식
서울시 양천구

거룩한 숨결의 후예

일반부
가작

나는 대한민국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 소대장이다. 분대장으로서, 부소대장으로서, 이제는 소대원을 책임지는 소대장으로서 10년의 세월 동안 척박한 강원도 땅에서 내가 지켜온 철책은 벌써 6번째 바뀌었다. 그 동안 지독한 외로움 속에 몸서리쳐 본 적도 있고, 강원도의 매서운 혹한에 내 뜨거웠던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린 적도 많았다. 하지만 나의 자랑스러운 소대원과 훌륭한 지휘관님들, 경험 많은 선배들 덕분에 현재까지도 서슬 퍼런 철책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

군인으로서 꼭 한번은 가봐야겠다고 다짐했던 현충원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숭고하고 찬란했던 선배님들의 숨결에 가슴이 뭉클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외쳤던 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탓일까? 그 숭고한 숨결은 내가 군인으로서 참여했던 수많은 중요한 훈련 때 흐르던 공기보다 훨씬 무겁고 엄숙했으며 내 군 생활의 모든 행복한 기억보다 더욱 찬란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거룩한 숨결은 군인으로서 나름의 자부심으로 임무 수행 중인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다.

현충원 안에 거룩한 숨결을 내쉬며 영원히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오롯이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만 가득했을 것이다. 두고 온 가족, 사랑하는 이, 항상 함께했던 친구들,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역사의 뒤안길

로 돌아서서 묵묵히 걸어간 그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고작 추위에 움츠러들고, 더위에 지치며 나의 안위를 걱정했고, 하고 싶은 일이 더 우선이었던 내 이기적인 마음들은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만으로 가득했던 순수한 충혼들 앞에 벌거벗은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현충원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둠보다 더 어두웠던 일제시대나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모든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방법은 오롯이 자신의 신념을 간직하고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숨긴 채 장렬히 산화하는 것이라는 슬프고 아름다운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살벌한 무한경쟁 속에서 당장의 눈 앞의 현실만을 쫓는 나를 비롯한 모든 젊은이들은 현충원의 거룩한 숨결을 느껴야 한다.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현재 젊은이들의 열정은 아름답지만 진정한 행복과 후손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헌신처럼 국가라는 절대적 가치를 사랑하고 주변 모두와 소통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젊은이들로 거듭난다면 순국선열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조국의 눈부신 미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현충원 무후선열제단 앞에서 그들의 거룩한 숨결을 이어갈 진정한 후예가 되기로 다짐했다. 무후선열제단에 숨 쉬고 계신 선배 전우들과 애국지사의 마음처럼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나를 기억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굳은 의지와 열정을 갖춘 진정한 군인이 되리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나에게 진정한 의미의 조국수호와 군인정신을 일깨워 준 현충원의 거룩한 숨결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이 거룩한 숨결의 후예가 되어 또다시 조국이 위기를 맞아 흔들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나와 내 자랑스러운 소대원들은 오늘도 차가운 철책 앞을 막아 서서 굳건히 지키겠다.

배현우
강원도 인제군

철모 구멍에 핀 꽃들

일반부
가작

유월의 햇살이 가시처럼
따끔거리나요?

하지만요

누군가 하늘의 싱그러움을
느끼는 동안
누군가는 뜨거운 화마와 맞서며
세상을 구합니다

누군가 바다의 상쾌한 바람을
맞는 동안
누군가는 끝없는 고난과 싸우며
세상을 지킵니다

유월의 궂은 비
때문에
우울하시나요?

하지만요

누군가의 땀과 피로 얼룩진
묘지를
푸르게 푸르게

누군가는 닦아내고
있네요

흙의 바다에 비쳐진
십팔만 백여섯 개의
모든 별들은

공작새의 아름다운 날개를
수놓고

우리 또한 하나의
별이 되어

갈매빛 편지를 싣고
저 하늘로
영원히 넘나드는

우리도……
우리도……

고요한 뱃사공

* 국립서울현충원의 모습이 공작이 날개를 편 공작장비형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였습니다.

김 정 훈
서울시 동작구

겨레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이해의 한 걸음

일반부
가작

사람이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부모가 되고 나면 한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통일되는 것 같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처럼, 겨레의 마음도 온 국민이 그들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값진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숭고한 희생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엄마가 병원에 오래 계실 정도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착한 딸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기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야만 하는 환경이었다. 지금 내가 엄마가 되어서는 내 딸은 나와 다르게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는 삶을 그 아이가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해 주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싶다. 하지만 아이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아마도 자신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

나라와 국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 같다. 어려움에 처한 국가는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또한 위기에 처한 조국이 자신보다 우선이 되어도 그 선택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만큼 국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꿈을 펼 수 있도록 많

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에 나라와 국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와 정말 닮았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어디 차이가 있을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위하는 마음에 더욱 정성을 더 할 우리인데 말이다. 자유와 여유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는 지금, 현충원에서 이렇게 내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당연하다고 느낄 것이 아니라, 전쟁과 원치 않는 분단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 독립된 하나의 나라의 국민으로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으로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다.

얼마 전 남북의 정상이 판문각에서 만나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눈빛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큰 뜻을 공유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았다. 6 · 25를 직접 겪지 않은 세대임에도 진한 감동과 설레는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진정성 있는 두 대표의 모습에서 밝은 조국의 미래를 보았다고 할까? 그 밝은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다. 지금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중하지만, 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기에 한민족이 되기 위한 발걸음 한 걸음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 국민도 분명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힘을 보탤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우선 차이를 이해하려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았다. 내 아이와의 관계를 보면, 내 자식이지만 사춘기쯤 되면 정말 많은 대화를 하기 전엔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어릴 때와 달라서 눈빛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요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지만,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의견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과 더불어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긴 만큼 열린 마음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불통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긴 시간 정성을 들여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의 폭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식과 부모세대도 차이가 있고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분명 있지만 결국 한 가족이라는 지붕 아래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대화를 꾸준히 하며 서로 더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게 될 것이다. 이 정보는 한민족이니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노력에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속이 비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의 밝은 미래와 평화로운 생활의 전제는 바로 안보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동의한다면 모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것이다.

나만 생각하던 과거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첫걸음을 나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다. 너무 멀리, 크게 보지 않고 지금의 우리 사회만 봐도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모든 관계에서 충돌 없이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나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라면, 사춘기 자녀를 두었다고 생각해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해의 첫발을 모두가 함께 하길 바라봅니다.

정 재 훈
서울시 동작구

바람 타고 온 편지

아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핏방울 거름 되어 싹을 틔우던
그 나무 아래
삼삼오오 모여 노래합니다

그늘 사이로 포근한 햇살 한 줄기
비쳐옵니다

손과 손이 닿아 원을 이루듯
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루듯
뜨거운 촛불 태워 밤을 비추듯

그 안에서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눈을 봅니다

일백 번을 쓰러져 일궈낸 나의 조국
타올랐던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푸른 오월의 하늘에서 당신을 맡습니다

들숨에 서려 있는 호국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 날숨에
편지를 띄웁니다

바람 타고 온 편지
다시금 바람 타고 그곳에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일반부
가작

박 시 원
인천시 부평구

이생(二生)

1933년 나는 태어났다
특별할 것 없던 생에
반전이 생긴 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다

누군가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던
나는 소년병이었다

몇 일인지 몇 달인지
시간과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아닌 듯
분리된 몸을 보았다
치열한 전쟁 통에 죽었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난
정신이 더 또렷해졌으며
멀쩡한 다리로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나는 후손이 없는 고로
오랜 시간 자연과 함께 지내다
국군의 유해발굴과 더불어
이곳 현충원에 오게 되었다

여기서 사계절 자연을 벗삼아
이곳 저곳을 산책하며 지낸다

일반부
가작

오늘은 그림대회가 열리는지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가족들도 정겹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니 내가 어린 나이에
자유 입대하지 않았다면

여러 생각들이 스치는 봄이다
저들처럼 가족을 이루고
치열한 생을 살고 있을지 모를 나

어쩌면 나는 이곳에서의 수 번째 생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슬며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늘에 말해본다

바람에 날려 내 어머니 귓가에
닿을 것만 같은 오늘이다

김혜진
서울시 마포구

통일의 꽃

일반부
가작

가려진 상처들은
시간을 분지르고
벽지 위 멍든 능선
알밤처럼 떨어지니

역사의 파도 소리에
추스르는 아픈 몸

천지를 진동하던
찢긴 지도 검은 흔적

푸른 산하 얼개 지우듯
칼바람 베고 누워

뽈뽈이
가시나무에
흩어지며 피 흘린다

마른 삭풍 붉은 분노
묘비 위에 누런 달빛

매일 밤 뒷마당에
생명처럼 흐르니

포성이
잦아들 무렵
떨어지는 밤 안개

희미한 바람결에
강물을 베고 누워

해 저무는 산봉우리
지우개로 닦아내니

날개를
접어 올리고
방긋 웃는 그림자

울음 우는 새싹 동산
봄 들판에 구름 되어

적막한 휴전선에
바다로 피어나니

통일의
꽃 솟아올라
햇살 타고 달린다

김 명 래
강원도 춘천시

현충원 소개

현충원방문안내
주요프로그램안내
나라사랑정신
현충원시설및조형물
현충원묘역
현충원행사

봄 호국행사(4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6월)

호국문예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5월)

호국영령 합동 위패봉안식

815광복절 기념 전시회(8월)

가을 호국행사(10월)

정기음악회(매월)

국방부 특별 군악 · 의장 행사(4~6월, 10~11월)

이승만 대통령 묘소

박정희 대통령 묘소

김대중 대통령 묘소

김영삼 대통령 묘소

애국지사묘역

국가유공자묘역

장군묘역

장병묘역

경찰묘역

현충문

충혼당

위패봉안관

재일학도의용군 전몰용사위령비

육탄10용사현충비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경찰충혼탑

유격부대전적비

충성분수대

호국영웅상

애국투사상

충혼승천상

영현승천상

대통령 참배

국빈 참배

학생 참배

어린이 참배

유아체험학습

나라사랑 체험학습

나라사랑 체험활동

나라사랑 호국강연회

일반 단체견학

국립서울현충원

주요 프로그램

나라사랑 행사

봄 호국추모행사_현충원, 호국의 봄을 열다 | 4월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수양벚꽃나무 군락지인 현충원에서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호국문예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 5월

- 내용 : 초 · 중 · 고 · 일반인 대상, 나라 사랑을 주제로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 시상 : 국방부장관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등 다수
- 신청 : 현충원 홈페이지 신청 www.snmb.mil.kr

정기음악회 | 3 ~ 11월

- 내용 : 국방부 국군교향악단(80인조 오케스트라) 등 초청 연주회
- 일시 및 장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변경 가능), 현충관
- 신청 : 현충원 홈페이지 신청 www.snmb.mil.kr

국방부 특별 군악 · 의장행사 | 4 ~ 6월, 10 ~ 11월

- 내용 : 국방부 3군 의장시범, 전통무술시범, 여군 의장시범 등
- 일시 및 장소 : 봄 · 가을 호국행사 중, 그 외 개최 결정일 토요일 오후 2시, 겨레얼마당
  (단, 부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현충원 홈페이지에 확정 일정 공지)

가을 호국추모행사 | 10월 말

가을이 무르익는 때, 현충원의 아름다운 단풍나무 아래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인 · 단체 봉사활동 | 4 ~ 11월

- 내용 :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을 통해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는 나라사랑 실천활동
- 대상 : 개인, 단체(학교,기업,각종 사회단체)
- 활동 : 묘비닦기, 잡초제거 등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교육 · 체험 프로그램

일반 단체견학 | 1 ~ 12월

연중 실시하는 현충원의 대표 견학 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일반단체 대상

- 내용 : 현충탑 참배, 묘역(해설)순례, 전시관 관람, 호국영화 관람

유아 체험학습 | 연중

유아 단체 대상, 색칠체험 교재 및 만들기 체험 교구 무료 제공

- 내용 : 현충원 색칠체험과 현충탑 퍼즐 연필꽂이 만들기 체험 중 택일, 호국영화 관람, 참배

국가상징 체험학습 | 3 ~ 11월

초등학생 대상 "현충원과 함께하는 국가상징물 체험학습"교육 프로그램

- 내용 : 유품전시관 해설, 교육, 태극기 퍼즐 맞추기 체험, 현충탑 참배, 묘역순례, 퀴즈 등
  (우수자 현충원장상 수여, 참가자 전원 교재 및 기념품 증정)

나라사랑 체험학습 | 3 ~ 11월

초 · 중학생 대상, 현충원 안장자와 연계된 "체험, 선열들의 발자취"교육 프로그램

- 내용 : 유품전시관 해설, 교육(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근 · 현대사 멀티 역사 연표 제작, 현충탑 참배, 애국지사 묘역 순례, 역사 퀴즈 등
  (우수자 현충원장상 수여, 참가자 전원 교재 및 기념품 증정)

나라사랑 호국강연회 | 3 ~ 12월

중 · 고등학생 대상 외부 유명강사 초청 특별강연 프로그램

- 내용 : 현충탑 참배, 묘역순례, 특별강연, 호국영화 관람(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나라사랑 체험활동 | 3 ~ 11월

초 · 중 · 고등학교 대상, 견학과 봉사를 결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 내용 : 현충탑 참배, 묘역(해설)순례, 봉사활동, 전시관 관람, 호국영화 관람(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충무정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안내

참배 · 개방시간

동절기(11~2월)의 토요일 및 휴일은 전시관 휴관입니다.

참배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개방 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전시관 관람 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단체견학 · 전시관 관람 등 무료

묘역해설순례, 영화관람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주차 | 동문 '현충선양광장', 현충문 옆 이용 가능(주차비 무료)
문의 | 교육담당 문의 02) 826-6251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동작 / 현충원역 하차 4번 출구(동문 150m) 9호선 동작 / 현충원역 하차 8번 출구(정문 10m)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2018 호국문예 제18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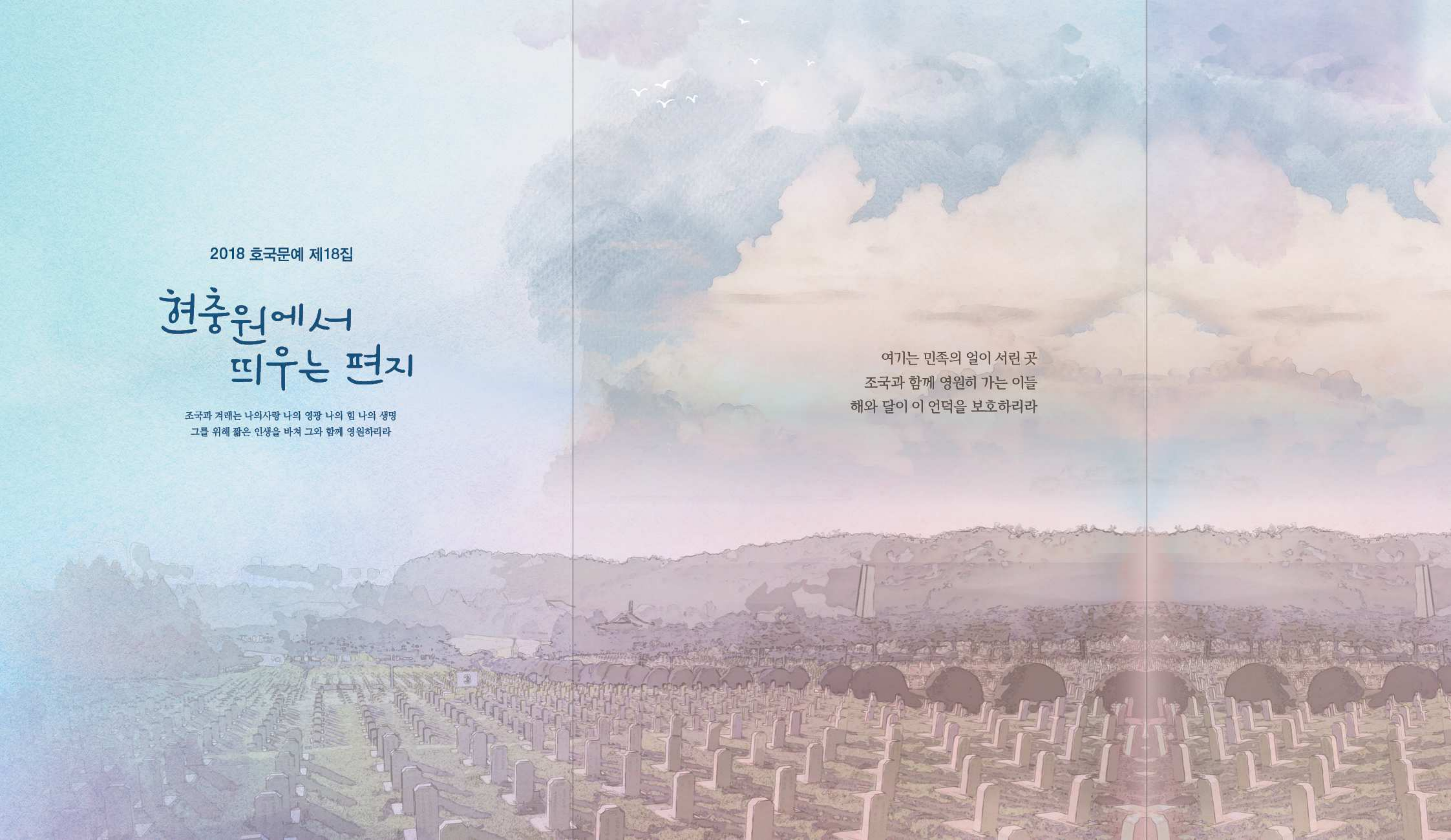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조국과 겨레는 나의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인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하리라

호국문예 제18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인쇄 · 발행 | 2018년 11월
기획 · 발행 | 국립서울현충원
편집 · 인쇄 | 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주 소 |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전 화 | (02)811-6342
홈 페 이 지 | www.snmb.mil.kr

ISSN 2586-260X 비매품



2018 호국문예 제18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조국과 겨레는 나의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인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하리라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간첩, 테러범, 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1337